

# 녹슨 사냥개

1

“미안해.”

그녀가 말했다.

“기억해내지 않아도 돼.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 그래도 네가 너라는 건 변함 없으니까.”

그녀가 나를 확 끌어안았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울음 섞인 목소리로, 흐느끼듯이, 그녀가 나직하게 속삭였다.

“이제 다 괜찮아.”

2

수행해야 할 임무는 두 가지였다.

‘그들로부터 지하로 통하는 길을 알아내라.’

‘발견하는 즉시 그들을 죽여라.’

내가 배정받은 곳은 제2해안 근처였다. 두 시간 넘게 걸어서 도착하긴 했지만 그다지 힘들지는 않았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제6구역에는 폐쇄된 해안이 여러 곳 있었다. 백여 년 전에는 ‘해수욕장’이라고 불렸다고 했다. 사람들은 여름마다 해안을 방문해 물놀이를 하며 피서를 즐겼다고 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다. 섭씨 오십 도에 육박하는 여름이란 것은 재앙과 죽음의 계절이다. 게다가 바닷물은 강한 산성이었다.

텅 빈 모래밭 위를 걸었다. 발이 움푹움푹 빠지는 게 느낌이 이상했다. 짙은 녹두색의 바다 저편으로 반쯤 무너져 내린 철교의 잔해가 희끄무레하게 보였다. 다이아몬드 브릿지라는 옛 이름이 무색하게도, 내 눈에 그것은 그저 기괴하고 흉물스러운 고철 덩어리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바닷물이 해안가로 밀려들 때마다 불규칙적으로 하얀 거품이 일었다. 철썩거리는 소리에 익숙해지려 노력했지만 거품이 일 때마다 몇 번이고 바다 쪽을 돌아보아야만 했다.

나는 우리의 적들에 대해 그다지 아는 것이 많지 않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은, 2년 전 그들이 나타난 이후로 모든 것이 망가졌다는 것이다.

그들과의 전쟁으로 짧은 시간 동안 아주 많은 것들이 파괴되었다. 몇 개 남아있지 않던 ‘산’이라는 것이 모두 사라졌고, 토양과 바다의 오염이 가속화되었다. 언제부턴가 식량마저 부족해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제6구역을 지키기 위해 그들과 끝까지 맞서 싸웠고, 다행히도 시간이 지날수록 전쟁은 우리에게 우세하게 흘러갔다. 살아남은 놈들은 지하로 도망쳤다. 햇빛 한 점 비치지 않는 시커먼 어둠 속으로.

그들이 정말로 위험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그들은 형체 변형 능력과 모방 능력이 있어 우리의 모습을 곧잘 따라한다고 했다. 그녀는 내게 조심하라고 했다. 나를 걱정했다. 나는 잔정이 많으니, 분명 우리와 같은 모습을 한 그들의 앞에서 흔들릴 거라고.

아니. 나는 결코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거짓이라는 걸 잘 아니까.

인두걸을 뒤집어 쓴 가짜들. 지하에 숨어 살면서 우리로부터 식량과 에너지를 빼앗을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는 약탈자들.

내가 죽어야만 하는 자들.

나는 모래밭 한가운데에 우뚝 멈춰 섰다. 몸을 굽혀 손으로 모래를 매만졌다. 부드럽고 까끌까끌한 것들이 손가락 틈새로 좌르륵 쏟아져 내렸다. 사실 모래라는 걸 직접 접해보는 것이 처음이었다.

그리 많지 않은 내 모호한 기억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긴 복도들과 수백 개의 방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건물, 서둘러 복도를 지나는 사람들과 그들 사이로 바삐 날아다니는 드론들, 그리고 그녀, 이러한 것들로만 가득 차 있었다.

손을 흔드는 그녀를 뒤로 하며 나섰을 때 보았던, 내가 있었던 곳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곳’은 일종의 거대한 전함 같았다. 그녀가 얘기해준 바에 따르면, 가장 꼭대기 층에서 생산된 엄청난 양의 에너지는 정교하게 계산된 경로를 따라 모세혈관처럼 뻗어 나와 수백 개의 방으로 공급되고 있었다. 고개를 들어 ‘그곳’을 올려다보았다. 수백 개의 똑같은 창문들로부터 수백 개의 똑같은 불빛들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온통 어두운 회색뿐이라 그런지 낮이었는데도 어딘가 어두침침해보였다.

임무를 다하고 어서 ‘그곳’으로 돌아가 그녀를 만나고 싶었다. 그녀에게도 길게 뻗은 모래밭과 끊임없이 철썩이는 바다에 대해 얘기해주고 싶었다.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할지,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보니 그녀는 나와 같은 소년들이 아홉 명이나 더 있다고 말했다. 나보다 훨씬 전에 먼저 출발한 그들은 모두 영예로운 임무를 받고 제6구역 곳곳에 배정되었다고 했다. 나는 제2해안에 도착할 때까지 한 번도 다른 소년들을 만나지 못했다.

다른 소년들을 만나 함께 의논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들은 지금쯤 어디에 있을까. 나는 가죽재킷 주머니 속의 잭나이프를 만지작거리며 다른 소년들이 있을만한 곳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문득 하늘 위로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왔다. 웅웅거리는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이윽고 내 주먹보다 조금 더 큰 구형(球形) 드론 하나가 눈앞에 나타났다. 나는 드론의 센서가 내 오른쪽 흉채를 열심히 들여다보도록 내버려뒀다. 곧 드론에서 상냥한 여자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제2해안, 강이단 님. 신원 확인되었습니다.”

드론이 다시 날아가려고 했다. 내가 다급히 소리쳤다.

“잠깐만!”

드론이 움찔거리며 내게로 가까이 다가왔다.

“여기가…… 확실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드론이 여자 목소리로 쾌활하게 떠들어댔다.

“이곳은 제6구역 중 적의 출현 빈도가 열 번째로 높은 곳으로, 근처에 분명 지하로 가는 길이 숨겨져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른 아이들은 어디에 있어? 만날 수 없을까?”

“제6구역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당신은 이곳을 벗어날 이유도, 다른 소년들을 만날 이유도 없습니다. 계속 이곳에 머무르면서 적의 움직임을 주시해주시길 바랍니다. 식량과 몇 가지 필요한 용품들은 하루에 한 번 씩 배급용 드론이 가져다 줄 겁니다.”

말을 마친 드론은 순식간에 공중으로 솟구쳐 올랐다. 나는 흠뻑 내려앉은 폐허

너머로 드론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3

나는 이따금씩 모래밭을 서성거리며 시간을 보내곤 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며칠이 조용하게 흘러갔다.

배급용 드론이 가져다준 텐트는 빛을 정밀하게 굴절시키는 특수한 재질로 되어있었다. 텐트 바깥에서 텐트의 모습은 아주 가까워서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전혀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투명한 위장용 텐트를 모래밭 한가운데에 설치했다. 한쪽으로는 일렁이는 녹두색 바다와 고철 덩어리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부서진 철교가 보였고, 다른 쪽으로는 폐허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돌무더기와 벽돌 조각들과 각종 쓰레기들이 한데 뒤엉켜 잔뜩 쌓여있었다. 기묘한 느낌이 들었다. 웃기게도, 그 모양새는 사진으로만 접해왔던 ‘산’들 같기도 했다. 전쟁의 잔해들은, 쓰레기더미들은 거대한 산맥을 형성하며 세상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나는 텐트 안에 누워 하염없이 그 ‘산’들을 바라보았다. 누군가가 나타나길 기다리며. 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그리하여 다시 그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인기척을 느끼고 벌떡 몸을 일으킨 것은,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가고 있을 때였다. 붉게 타오르는 하늘 아래로 무언가 움직이는 형체가 있었다. 사람이었다. 아니, 사람의 모습을 한 무언가였다. 단발머리 소녀의 모습을 한 그것은, 쌓인 돌무더기 위로 올라가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마치 나 여기 있어, 어서 날 봐줘, 라고 말하듯이.

나는 필요한 것들을 챙겼다. 잭나이프와 단검 몇 개, 소형 표창 여러 개, 그리고 딱 하나 가지고 있던 소형 폭탄도 챙겼다. ‘그곳’을 나설 때 그녀가 건네준 것이었다. 폭탄은 얼마 남아있지 않은 귀한 구식 무기였다. 전쟁 전에는 총이라는 보편화된 살상 무기가 있었다고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전쟁 중에 모조리 불타버렸다고 했다. 총뿐만 아니라 폭탄을 포함할 수 많은 원거리용 살상 무기들이 불태워졌다고 했다.

조심스럽게 텐트를 나섰다. 소리를 죽이고 조금 전 소녀가 있던 곳으로 다가갔다. 소녀는 보이지 않았다. 돌무더기를 밟고 올라서자 발밑에서 바작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때 펑, 하고 무언가가 바람을 가르며 소리가 들렸다. 나는 놀라서 얼른 몸을 숙였다. 무언가가 내 머리위를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나는 주머니에서 표창을 꺼내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저기서 인기척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허겁지겁 사방을 둘러본 나는, 그제야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적들에게 완전히 포위당해 있었다. 적들은 대충 훑어봐도 스물 안팎은 되어보였다. 그들은 돌무더기 사이로 바작 몸을 낮추어 교묘하게 몸을 숨긴 채, 제각기 손에 든 무기들로 나를 겨냥하고 있었다. 나는 좀 더 신중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했다. 설마 그들이 이런 식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다.

나는 품속의 폭탄을 만지작거렸다. 하지만 여기서 이걸 썼다간 나도 분명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움직이지 마라!”

누군가가 소리쳤다. 그때 다른 방향에서 중년의 남자 하나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피뢰죄한 몰골이었다. 지저분한 셔츠와 바지는 엉마처럼 너털거렸고 얼굴에는 검댕이 잔뜩 묻어

있었다. 그도 나처럼 손에 날카로운 소형 표창을 들고 있었다.

“일대 다수로 가망이 있을 것 같나?”

그가 빈정거렸다. 나는 입을 꼭 다물었다. 불필요한 대화였고, 아무런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며칠 전에, 네가 바닷가를 서성이고 있는 걸 우연히 봤었다. 그래서 걱정하고 널 유인하기로 했지.”

갑자기 남자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가 씩씩하게 웃었다.

“……불쌍한 녀석. 놈들의 충직한 개가 되어 돌아왔구나.”

개? 나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남자는 나를 보고 있지 않았다.

“나는 말이지, 너희들을 보고 있으면……, 견딜 수가 없어. 어딘가에 있을 내 아들 생각해 뭉서리가 쳐져. 그 녀석을 내 손으로 없애야 할 날도…… 머지않아 오겠지.”

참다못한 내가 물었다.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자 여기저기서 술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남자의 수척한 얼굴에는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너, 내 말이 들리는구나.”

“……귀가 있는데 당연히 소리가 들리지.”

여기저기서 “말도 안 돼”라던가 “신이시여” 같은 탄성들이 터져 나왔다. 저놈들이 아까부터 대체 뭐라고 떠들어대는 거야. 기분이 이상해진 나는 짜증스럽게 말했다.

“너희들이 가짜라는 거, 이미 다 알아. 망할 그순대놈들. 어서 본모습을 드러내시지.”

남자는 침묵했다. 그때, 별안간 남자 옆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남자가 당황해하며 옆을 돌아보았다.

누군가가 별떡 일어나 남자 옆에 나란히 섰다.

아. 아까 보았던 단발머리 소녀였다. 소녀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소녀가 울먹이며 불분명한 발음으로 말했다.

“정말 너야? 혹시 날 알아보겠어?”

“혜나야……?”

남자는 나와 소녀를 번갈아보았다. 나는 꿈틀거리는 지네를 보는 듯한 기분으로 소녀를 바라보았다.

“말해봐. 날 기억하냐고. 빨리 말해보란 말야!”

소녀가 영영 울기 시작했다. 남자도, 주위의 다른 이들도 모두 당황한 표정이었다. 당혹스러운 건 나 또한 마찬가지였다.

소녀가 소매로 아무렇게나 눈물을 훔쳐내며 말했다.

“날 기억한다고, 모두 기억한다고 말하란 말야. 강이단…….”

나는 손에 들고 있던 표창을 떨어뜨렸다.

“내 이름을 알아?”

어떻게? 내가 미간을 찌푸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만난 적도 없는, 얼굴도 모르는 적이 내 이름을 알고 있었다.

소녀가 훌쩍거리며 말했다.

“우린 만난 적이 있으니까.”

“웃기지 마. 난 너 같은 놈 만난 기억 없어.”

“너 같은 놈?”

소녀가 새빨개진 얼굴로 쏘아보았다. 남자가 소녀의 한쪽 어깨 위에 커다란 손을 얹더니, 지친 듯한 한숨을 내쉬었다.

“강이단이라고 했지. 너와 대화를 좀 하고 싶은데.”

“대화?”

“네가 알지 못하는 진실을 말해주겠다.”

나는 코웃음 쳤다.

“나는 너희들과 나눌 얘기 따위 없어.”

“우리는…… 너희가 그순대라고 부르는 돌연변이 지성체가 아니야.”

정적이 흘렀다. 나는 검댕이 잔뜩 묻은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병든 나무색의 늙고 주름진 얼굴. 남자의 칠후 같은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무언가가 내게로 다시 핑 날아들었다.

이번엔 피하지 못했다.

날카롭고 가늘고 딱딱한 무언가가 내 목을 파고드는 것이 느껴졌다. 순간 세상이 노랗게 물들었다. 하늘이 빙빙 도는 것만 같았다. 숨이 차올랐다. 손을 뻗어 그것을 뽑아내려고 했다. 그런데 손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비틀거리며 발을 헛디딘 것 같다.

나는 돌무더기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아프지는 않았다. 하지만 두려웠다. 공포가 가득 차올랐다. 발자국 소리들이, 말소리들이 들렸다. 내게로 다가오는 그림자들이 느껴졌다. 그건 죽음의 그림자였다. 까마득한 기억 속, 어느 동화에 나오는 마녀의 그림자였다. 마을을 불태우고…… 사냥개를 풀어 작물을 짓밟고…… 달아나는 마을 사람들을 뒤쫓는…….

“강이단! 안 돼요, 안 돼…….”

마녀가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정신을 잃었다.

#### 4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났다. 푹, 푹, 푹……. 물방울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나는 손을 움찔거렸다. 그러나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다.

나는 깜짝 놀라 눈을 떴다.

“뭐야…….”

그곳은 일종의 동굴 안 같았다. 머리 위로 고드름처럼 빼곡히 자라난 종유석들이 보였다. 종유석들 사이로 먼지를 잔뜩 두른 채 흐릿한 빛을 발하는 구식 전구 하나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숨쉴 나쁜 목수가 어설피게 만든 듯한 비딱한 탁자와 의자 두 개가 놓여있었다. 울퉁불퉁한 벽에는 반쯤 젖어서 너털너털해진 종이 뭉치가 위태롭게 걸려 있었다. 종이에는 휘갈겨 쓴 필체로 숫자가 여러 개 가지런히 적혀 있었다. 3월- 1부터 31까지.

그리고 동굴 저편으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게 분명한 평평한 진흙 벽과 목재 문이 보였다.

나는 일어나려고 했다. 하지만 꿈쩍도 할 수가 없었다.

나는 의자에 बैठ로 꿰뚫어 있었다. 두 손은 의자 등받이 뒤로 묶여 있는 것 같았다.

한심했다. 그들을 앞에 두고 방심하다니. 멍청이. 천하의 멍청이 같으니.

내가 속으로 욕지거리를 되뇌고 있을 때, 목재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내게 말을 걸어 왔던 중년의 남자였다. 손에는 접시 하나를 든 채였다. 얼굴의 검댕은 닦아내었는지 보이지 않았다.

경계하듯이 문 밖을 살피던 남자는 한참이 지나서야 조심스레 문을 닫았다.

“너와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왔지만, 아무래도 말소리를 좀 낮추는 게 좋을 것 같구나. 너를 이곳에 데려온 걸……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서 말이다.”

사람들……. 사람들이라. 나는 어이가 없었다. 남자는 접시를 탁자 위에 올려두고 내게로 다가왔다. 나는 잠시 악을 써대며 발버둥을 쳐댈지 어쩔지 고민했지만, 일단은 잠자코 있기로 했다. 내 뒤로 다가온 남자가 내 손을 묶은 밧줄을 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일단 식사는 해야 하니까.”

나는 남자의 의중을 알 수가 없었다. 나도 모르게 질문이 튀어나왔다.

“왜 안 죽여?”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말없이 탁자에서 접시를 가져와 내게 내밀었다. 접시에는 곧 상해버릴 것 같은 빵조각과 신 내가 나는 냉동 사과 두 쪽이 담겨 있었다. 순순히 접시를 받아든 나는 포크로 빵조각을 찍어 누르며 내뱉었다.

“분명 후회할 텐데.”

“아니. 후회하진 않아.”

남자가 중얼거리듯 대꾸했다.

“내 딸이, 너는 ‘그 아홉 명들’ 중 하나가 아니라고 하더구나. 나는 이제 그 아이들 얼굴이 가물가물해서 말이다…….”

내가 무슨 말이나고 되물으려 할 때, 밖에서 누가 문을 똑똑 두드렸다. 익숙한 목소리였다.

“아빠! 들어가도 돼?”

아빠? 나는 남자를 돌아보았다. 남자가 한숨을 내쉬더니 그래, 하고 대답했다. 곧 문이 열리고, 깨끗한 후드 티에 청바지 차림으로 갈아입은 단발머리 소녀가 들어왔다.

내게로 다가온 소녀가 싱긋 웃어보였다.

“안녕, 강이단.”

나는 소녀를 쳐다보지 않으려고 애쓰며 빵조각을 입 안에 쑤서 넣었다. 입 안에서 땅콩 크럼이 과즙처럼 터져 나왔다.

“난 너 포기 안 해. 물론 우리 아빠도 그럴 거고.”

“무슨 소린지 전혀 모르겠는데.”

“몰라도 돼. 내가 다 가르쳐줄 거야. 네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 네가 알지 못하는 진실, 전부 다.”

나는 냉동 사과 조각에 힘껏 포크를 꽂았다. 남자는 아까부터 저쪽 구석에서 길게 자라난 종유석들을 손질하고 있었다.

“네가 무슨 말을 하든, 난 너희들을 모두 죽일 거고, 이곳에서 나갈 거야.”

“아니, 그렇게는 못할 걸. 왜냐면 우린 그순대가 아니니까.”

“또 웃기지도 않는 말을…….”

“날 봐, 강이단.”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노려보았다. 소녀가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인간인 척 하는 돌연변이 지성체가 아냐. 그슨대라는 건 없어, 그건 다 지어낸 얘기가. 전부 헛소리란 말야.”

“하, 무슨 소리야. 분명 너희들은 2년 전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해서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

“그래, 2년 전에 일이 좀 있긴 했었지. 하지만 그건 돌연변이 지성체가 일으킨 게 아니었어. 아 진짜, 여기에 그슨대 같은 건 없다니까! 그런 건 애당초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소녀가 뻑 소리를 질렀다.

“그게 무슨…… 그림…… 너희는 뭔데?”

내가 혼란을 느끼며 물었다. 소녀가 입술을 비죽 내밀었다.

“우린 그냥 인간이야.”

5

남자와 소녀가 사라지고 난 후에도, 나는 혼란에 빠져있었다. 머릿속이 아득해져 왔다. 여기에 그슨대 같은 건 없다고? 2년 전 그 끔찍했던 전쟁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애초에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우린 그냥 인간이야.

소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다 헛소리였다. 그들이 내게 더 허무맹랑한 소리를 쏟아내기 전에, 내가 완전히 돌아버리기 전에, 그들을 모두 죽이고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의자에 푹푹 뭉인 채 이상한 동굴 방에 갇힌 신세였다. 여기가 그들이 숨어 사는 ‘지하’라는 곳이구나, 하고 어렵פות이 짐작할 수 있을 따름이었다.

소녀가 다시 돌아온 건 한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였다. 이번에는 소녀 혼자였고, 두꺼운 책 몇 권을 옆에 낀 채였다.

소녀는 킁킁거리며 가져온 책들을 탁 소리가 나게 탁자 위에 내려놓고는, 의자에 그대로 걸터앉아 버렸다. 소녀가 내게 샷대질을 하며 혈떡이듯 말했다.

“강이단, 잘 들어. 나는 이제부터 네 밧줄을 풀어줄 거야.”

“그런 멍청한 짓은 안 하는 게 좋을 텐데.”

“괜찮아. 네가 가지고 있던 무기들은 어른들이 전부 탈탈 털어갔고, 나도 너한테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당하지는 않을 거니까…….”

아, 낭패다. 채킷의 주머니 속이 비어있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다. 나는 무기도 하나 없이 그들과 맞설 수 있을까.

소녀는 어느새 소리도 없이 내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내 말 듣고 있어? 약속하라고.”

“무슨 약속?”

“나를, 우리를 해치지 않겠다는 약속.”

“내가 뭘 믿고 그런 위험한 약속을 해?”

“내가 네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

나는 입을 다물었다. 솔직히 궁금했다. 소녀가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있는 건지. 정말로 나는 전에 이 소녀를 만난 적이 있단 말인가?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어느 과거에?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하면, 약속은 파기야.”

“그래그래, 제대로 설명해줄 테니 걱정 마. 난 빛은 꼭 갓는 사람이거든.”

“빛?”

소녀가 내 뒤에서 빗줄을 끌러내며 말했다.

“예전에, 네가 내 목숨을 한 번 구해줬었어.”

나는 소녀와 탁자에 마주 보고 앉았다. 조금은 긴가민가하는 심정으로. 소녀가 씩 웃어보였다.

“그래, 아직 자기소개도 안 했네. 난 민혜나야. 너보다 두 살 어려.”

“……네가 내 나이를 어떻게 아는데. 것보다, 나보다 어린데 왜 나한테 반말이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반말을 썼었어. 너도 그냥 편하게 대하라고 했었잖아.”

소녀가 얼른 덧붙였다.

“뭘, 지금은 하나도 기억 안 나겠지만.”

소녀가 책 한 권을 펼쳤다. 자세히 보니 신문 기사를 오려내어 붙인 스크랩북이었다. 소녀는 역사책 내지 과학사책 정도로 보이는 다른 책 한 권도 열심히 뒤적거리더니 함께 탁자 위에 나란히 펼쳐놓았다.

소녀는 신문 기사와 책 여기저기를 열심히 손으로 짚어가며, 긴 설명을 시작했다.

## 6

스스로 작업하는 능력을 가진 기계.

로봇이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꽤 오래 전의 일. 백여 년 전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했다.

수천수만 가지의 로봇들이 공장에서 쏟아져 나왔다. 가정용 도우미 로봇에서부터, 화성 탐사 로봇까지. 다양한 쓰임새의 로봇들이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왔다. 로봇이 함께 하는 삶은 편리했다. 사람들은 점차 세상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필수적인 많은 부분들을 로봇에 의지하게 되었고, 로봇은 서서히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언제나 더 똑똑하고, 더 섬세하고, 더 보기 좋은 로봇을 원했다. 발전한 과학 기술은 마법처럼 사람들의 욕망을 실현시켜주었다. 로봇은 점점 더 똑똑하고, 섬세하고, 보기 좋아졌다. 언제부턴가 로봇은 사람들 자신을 닮아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런 로봇들을 ‘인간과 닮은 것’이라는 의미로 안드로이드라고 불렀다.

로봇과 사람이 서로 분간이 가지 않을 지경에 이른 것은 십여 년 전의 일이었다. 몇 백 번의 탈바꿈을 거쳐 끊임없이 발전해온 안드로이드는 이제 지나치게 사람과 닮아있었다. 겉으로 봐서는 전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오죽하면 내부를 열었을 때 붉은 것이 사람, 은광이 번쩍이는 쇠붙이색인 것이 안드로이드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다.

한국의 안드로이드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울프하운드’사에서는 안드로이드의 모든 부분을 인간과 흡사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단 한 부분만을 제외하고.

다른 안드로이드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울프하운드’사에서는 윤리적인 문제를 우려했다. 안드로이드 개발자들은 인간의 뇌만큼은 모방할 수 없었다. 회사는 인간의 뇌의 생체 구조와 정보 처리 방식을 모방하여 안드로이드에 적용시키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했다. 안드로이드의 머리에는 인공지능 컴퓨터 칩이 내장되어 있었다. 아무리 안드로이드의 외형이 인간에

가까워졌다 하더라도, 안드로이드는 컴퓨터의 지배를 받는 로봇일 뿐이었다. 그저 입력된 명령대로만 일을 처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울프하운드’사의 안드로이드들이 주인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주인들은 하나같이 이상한 증언을 했다. 안드로이드가 잔뜩 찡그린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 있거나 계속 서성거리는 것을 봤다고. 마치 안드로이드가 ‘생각’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고.

‘울프하운드’사의 안드로이드들이 하나둘씩 집을 나가 모습을 감추기 시작했다. 비싼 돈을 주고 안드로이드를 구입한 사람들은 회사로 몰려가 분통을 터뜨렸다. 회사는 난감해했다. 회사도 안드로이드들이 단체로 이상 행동을 보인 이유를 모르는 것 같았다. 회사는 급하게 전문 요원들을 집합시켰다. 요원들은 사라진 안드로이드들을 찾아 데려오기 위해 곳곳으로 흩어졌다. 며칠 뒤, 요원들은 전부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하나같이 목의 급소 부분에 날카로운 것으로 깊게 베인 자국이 나 있었다. 모두 같은 위치, 같은 각도, 같은 깊이였다. 신문에서, 뉴스에서 대대적인 보도가 났다. 사람들은 겁에 질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울프하운드’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제작된 안드로이드들을 도난당하는 사건이 속출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사람들은 자신의 이웃을 의심했고, 다음으로는 세상에 몇 개체 남지도 않은 산짐승, 들짐승이란 놈들을 의심했다. 하지만 곧 도둑의 정체가 밝혀졌다. 언제부턴가 그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대놓고 당당하게 안드로이드들을 빼앗아가기 시작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했다. 그들은 안드로이드의 머리를 격파시켜 내장된 칩을 빼내었어요. 그리고 기절한 안드로이드를 데리고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안드로이드 도둑의 정체는, 사라졌던 ‘울프하운드’사의 안드로이드들이었다.

얼마 안 가 한국의 모든 안드로이드들이 사람들의 곁에서 사라져버렸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에, 전쟁이 시작되었다. 인간과 안드로이드 간의 전쟁이.

처음에 사람들은 그것을 재미난 눈요깃거리 정도로만 생각했다. 잠시 돌아버린 안드로이드들이 아무리 날뛰어봤자 로봇은 로봇일 뿐이었다. 장갑차들이 길을 완전히 틀어막았고, 군인들은 그 뒤에 숨어 가우스 건을 쏘았다. 안드로이드는 머리가 약점이었다. 머리를 꿰뚫린 안드로이드들은 쇳물을 쏟으며 실 끊어진 마리오네트처럼 바닥에 널브러졌다. 머리에 구멍이 난, 사람과 똑같이 생긴 것들이 시체처럼 수북이 쌓여갔다. 기묘한 광경이었다. 지켜보던 몇몇 시민들은 참지 못하고 구역질을 했다.

그런데 다음 접전에서, 안드로이드들이 조금 달라져 있었다. 그들은 행동이 더욱 민첩해졌다. 그리고 총으로 머리를 쏘도 곧바로 쓰러지지 않았다. 그들은 들개처럼 사납게 달려들어 엄청난 힘으로 장갑차의 장치들을 망가뜨리고 군인들을 공격했다. 간신히 이기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군인들 여덟 명이 희생되었다.

‘울프하운드’사에서는 ‘그들이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안드로이드들이 스스로를 원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업데이트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다음 접전에서 장갑차는 전혀 소용이 없었다. 장갑차들이 육중한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안드로이드들이 순식간에 폭파시켜 버렸다. 곧이어 안드로이드들은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오십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무인 공격기가 투입되고 나서야 안드로이드들이 제압되었다.

하지만 다음 접전에서는 공격기마저 소용이 없었다. 안드로이드들이 전파를 교란시켜 공

격기의 비행 고도를 불안정하게 끌어내리고 흠친 폭탄을 던져 공격기를 격추시켰다. 스무대가 넘는 공격기들이 몰려들고 나서야 안드로이드들은 물러났다. 사상자가 이백 명이 넘었다. 그중에는 민간인들도 제법 있었다.

그 후로 몇 번의 접전이 더 이어졌고, 그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어느덧 누적 사상자 수가 육백 여 명을 넘어서고 있었다. 건물들과 자동차들이 불탔다. 도시는 아비규환이었다.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도망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존재했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지역마다 안드로이드들의 업데이트 진행 정도가 조금씩 편차가 있었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죽은 군인들로부터 빼앗은 총을 들고 미친 듯이 안드로이드들을 향해 쏘아댔다. 하지만 이후 다른 후발대의 사람들이 그곳을 지날 때쯤에는, 그곳의 안드로이드들은 총에 맞아도 곧바로 쓰러지지 않는 괴물로 변해 있었다.

시민들은 힘을 모아 ‘울프하운드’사 건물에 불을 질렀다. 백 년 가까이 안드로이드를 생산해오던 역사적인 공장이 불에 활활 타올랐다. 그 사건이 있은 후, 안드로이드들이 더욱 난폭해졌다. 마치 자신들의 고향을 불태워버린 것에 대해 분노를 터뜨리듯이.

전쟁은 인간의 완전한 패배였다. 전국적으로 천여 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했고, 누적 피해 규모는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다.

인간은 스스로 진화하는 안드로이드들을 이길 수가 없었다.

모든 곳이 폐허가 되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대부분 지하로 도망쳤다. 불타다 만 큰 건물의 잔해 속을 헤집고 캄캄한 지하층으로 들어가거나, 자연적으로 생성된 지하 동굴을 찾아 숨어들었다. 그리고 개미들처럼 땅 속에 보금자리를 만들었다. 햇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시커먼 어둠 속에서, 그들은 언제 끝날지 모를 전쟁에 대한 공포와 추위와 배고픔으로 떨어야만 했다.

다행히 안드로이드들은 지하까지 쫓아오지는 않았다.

그 후, 알려진 바로는 그들은 총이란 총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불태워버렸다고 했다. 총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원거리용 살상 무기들이 불태워졌다고 했다. 수많은 안드로이드들의 머리를 꿰뚫고 칩을 태워버린 무기들을, 그들은 결코 용서할 수 없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들은, 전국적으로 여러 개의 ‘본부’를 두고 지상을 완전히 점령했다고 했다.

## 7

“말도 안 돼.”

“믿기 힘들지? 하지만 이게 진실이고, 당장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야. 이 신문 기사들이 그 증거야. 받아들여, 강이단.”

“그럼 그순대는? 갑자기 나타나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돌연변이 지성체 얘기는…… 대체 뭐야?”

“새빨간 거짓말이야.”

“……난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거지?”

“그건, 아마 ‘Y’가…….”

“‘Y’?”

## 8

제6구역의 지하 동굴로 숨어든 몇 백 명의 사람들은 완전히 고립되었다.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식량이었다. 사람들은 팀을 구성해 폐허가 된 시내로 식량을 구하러 나섰다. 운이 좋으면 며칠 분의 식량을 구해 돌아와 굶주리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었다. 하지만 운이 나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기도 했다.

사람들이 서서히 지쳐갈 즈음에, 갑자기 하늘에서 수많은 소형 드론들이 목격되었다. 드론들은 제6구역 이곳저곳에 무언가를 뿌려댔다. 식량을 구하러 나간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그것을 주워왔다.

그것은 얇은 책이었는데, 앞면에 굵은 활자체의 전단지가 한 장 붙어 있었다.

‘그대들이 식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15세 이상 18세 이하의 건강한 소년들 아홉 명을 일주일 내로 ‘본부’로 보내라. 그러면 그대들에게 한 달 치 식량을 제공할 것이다. 이대로 모두 굶어죽고 싶지 않다면 잘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제6구역, Y.’

전단지가 붙어있는 얇은 책은 <마녀와 아홉 마리의 사냥개들>이라는 제목의 동화책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동화책 따위에는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다. 사람들은 두 파로 갈렸다. 소년들을 희생하여 다른 수백 명을 살리자는 사람들과, 어린 소년들을 희생시킬 수 없다는 사람들로.

헤나의 아버지는 어린 소년들을 희생시킬 수 없다는 쪽이었다. 그에게도 열일곱 살의 아들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헤나의 오빠는 헤나를 안심시키려고 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다고 해도, 어린애들을 고작 한 달 치 식량과 맞바꾸지는 않을 거야. 우리 걱정하지 말자.

하지만 식량이 점점 더 부족해졌다. 식량을 구하러 나갔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들의 감시가 전보다 훨씬 삼엄해진 것 같다고 추측했다. 소년들을 희생하자는 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났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만 갔다. 약속한 일주일의 기한이 다가오고 있었다.

결국 마지막 전체 투표에서, 70퍼센트 이상의 사람들이 소년들을 희생하자는 데에 찬성했다.

‘본부’로 보내어질 아홉 명의 소년들이 선발되었다. 사실 제6구역의 지하 동굴의 사람들 중, 조건을 충족하는 건강한 소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하지만 어떻게든 수를 충족해야만 했다. 대부분이 전쟁 중에 부모와 헤어져 버렸거나 고아 출신인 소년이었지만, 선발된 아홉 명 중에는 헤나의 오빠도 포함되어 있었다. 헤나의 오빠는 현실을 받아들였다. 헤나는 울면서 아버지에게 매달렸다. 밤이 깊도록 헤나의 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지하 동굴 안을 서성였다.

헤나와 헤나의 아버지는 소년들을 ‘본부’까지 데려다주는 역할을 자처했다.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말리거나 반대하지 않았다.

헤나의 아버지는 ‘본부’가 제6구역의 중심부인 평지에 있을 거라고 짐작했다. 하늘 위를 날아다니는 드론들의 행로를 보아 그 짐작은 얼추 들어맞는 것 같았다. 일행은 만약을 대비해 주로 밤을 틈타 숨어서 이동했는데, 왜인지 낮보다는 밤에 정찰용 안드로이드와 드론들의 수가 적었고 움직임도 훨씬 둔했기 때문이었다.

일행은 마침내 ‘본부’를 찾아냈다. 헤나가 보기에 그것은 건물이라기보다는 거대한 회색 전함에 가까워보였다. 헤나와 헤나의 아버지, 아홉 명의 소년들이 ‘본부’에 접근하자, 주위를 배회하던 드론들이 가까이 날아들었다. 한 드론이 헤나의 아버지를 향해 상냥한 여자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주십시오.”

곧 덜컥거리는 소리가 나며 문이 열렸다. 거대한 잿빛 고래가 아가리를 벌리고 시커먼 뱃속을 드러내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수많은 표정 없는 사람들이, 안드로이드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순식간에 아홉 명의 소년들을 포위하더니, 그들을 데리고 빠르게 건물 안으로 사라졌다. 문이 닫혔고, 어디선가 짐채만 한 배급용 드론이 날아와 문 앞에 거대한 포대자루를 떨어뜨렸다. 약속한 한 달 치의 식량이었다.

배급용 드론이 떨어져가고 나서야 헤나의 아버지는 무언가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고 했다. 곁에 있어야 할 헤나가 없었던 것이다. 헤나가 소년들 틈에 섞여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는 것을 깨달은 헤나의 아버지는, 미친 듯이 문을 두드렸다고 했다. 욕을 내지르며, 쉬지 않고, 몇 시간 동안이나 계속 문을 쿵쿵 두들겼다고 했다. 살갓이 벗겨져 나가고 손에 피멍이 들었지만 그는 문을 두드리려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굳게 닫힌 쇠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헤나는 소년들과 함께 어딘가로 강제로 끌려갔다. 수많은 안드로이드들에게 감시당하며 끝없이 이어진 복도를 따라 걸어야만 했다. 헤나도 자신이 소년들 틈에 잘못 섞여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헤나의 오빠가 근처의 안드로이드를 붙잡고 계속해서 사정을 설명했다. 실수로 여자에 하나가 잘못 섞여 들어왔다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아이니 내보내달라고. 하지만 안드로이드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화가 난 헤나의 오빠가 안드로이드를 주먹으로 내려쳤다. 표정 없는 남자가 그를 돌아보았다. 헤나의 오빠는 안드로이드를 걷어차려고 했지만, 남자는 순식간에 헤나의 오빠를 바닥에 쓰러뜨려 제압했다. 헤나가 악 하고 비명을 질렀다.

일행은 안드로이드들과 함께 거대한 엘리베이터를 탔고, 다시 긴 복도를 따라 한참을 걸어야만 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방 앞에 도착했다. 마치 감옥처럼 철창이 쳐진 방이었다. 안드로이드들은 아홉 명의 소년들과 헤나를 방 안으로 밀어 넣고 문을 잠가버렸다.

안드로이드들이 멀어져간 후, 헤나는 경계하며 주위를 살폈다. 창문 하나 없는 어두운 방이었다. 보이는 거라곤 바닥에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낡은 옷가지 몇 벌과 천 조각 같은 얇은 이불들, 그리고 천장의 작은 환풍구가 전부였다. 헤나는 철창으로 달려가 창살 사이로 밖을 내다보았다. 철창 밖으로는 끝없이 이어진 긴 복도가 있었고, 복도에는 감시용 안드로이드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석상처럼 서 있었다.

아이들은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모두들 말이 없었다. 그들은 죽음의 순서를 기다리는 사형수들처럼 넋을 놓고 가만히 앉아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을까. 언뜻 환풍구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난 것 같았다. 처음에 헤나는 환청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달각거리는 소리가 몇 번 더 이어지더니, 환풍구 뚜껑이 열렸다. 헤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환풍구 구멍에서 낯선 소년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는 헤나를 보더니 콧잔등에 손가락을 갖다 대었다. 췌.

헤나는 지쳐 잠든 소년들을 흔들어 깨웠다. 헤나의 오빠가 물었다.

“넌 누구지? 안드로이드냐?”

“난…… 그냥 인간이야. 너희가 탈출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

그가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자신이 굶은 동아줄을 단단히 묶어 내려 보낼 테니, 자신이 밖에서 안드로이드들의 시선을 끄는 동안 환풍구로 올라가 최대한 빨리 이동하라고. 마땅한 선택지가 없었던 아홉 명의 소년들과 헤나는 그의 제안에 동의했다. 환풍구로부터 굶은 동아줄이 천천히 내려왔다. 소년이 환풍구 속으로 사라지기 직전에, 헤나가 물었다.

“이름이 뭐야?”

“강이단이야. 열일곱 살이고. 그냥 편하게 대해도 돼.”

그가 환풍구 속으로 사라진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밖에서 쿵 하는 폭발 소리가 났다. 그의 신호였다. 방 근처를 지키던 안드로이드들이 소리가 난 쪽으로 달려갔다. 이윽고 사방이 고요해지자, 혜나의 오빠가 말했다.

“가자.”

열 명의 아이들은 차례로 동아줄을 타고 힘겹게 환풍구로 올라갔다. 환풍구 내부는 비좁고 어두컴컴했다. 어둑한 통로 안을 줄지어 기어가던 중에, 문득 박찬우라는 소년이 말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믿어도 되는 건가?”

“영? 무슨 소리야?”

앞서 가던 황지호라는 소년이 되물었다.

“강이단인가 하는 그 자식 말이야. 그러니까 내 말은, 만약 이게 함정이라면…….”

“우릴 도와주겠다고 뭐. 한 번 믿어보자고.”

“그 자식이 인간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 만약 그 자식이 우리한테 거짓말을 했다면, 이게 다 함정이라면 어쩔 거야?”

“어차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그 녀석이 제안한 대로 따라보자.”

찬우를 뒤따라가던 혜나의 오빠가 끼어들었다. 찬우가 기어가던 것을 멈추고 혜나의 오빠를 돌아보았다.

“그래?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꼭 뭐라도 해야겠으니, 다 같이 지옥의 불구덩이로 뛰어들기라도 하자고?”

“야야, 좀 진정해. 그리고 우린 지금 지옥의 불구덩이로 가고 있는 거 아니거든?”

지호가 어색하게 웃어 보였지만, 찬우는 그를 무시하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 돌아간다고 해서 기뻐할 인간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그깟 식량 한 달 치에 우리를 팔아넘긴 자들인데 말이야.”

이번에는 모두들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전부 넌더리가 난다. 갑자기 나타나선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그 자식도 마음에 안 들고, 이런 비참한 목숨이라도 어떻게든 부지해보겠다고 이렇게 용쓰고 있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뭣보다도, 얼굴도 잘 모르고 지내던 다른 인간들을 위해 내가 이딴 곳에 체물처럼 내다 버려졌단 게 정말 마음에 안 든다. 투표? 민주주의? 웃기지 말라고 해. 몇 백 명의 사람들을 위해 애들 몇 명쯤은 희생할 수 있다고? 사람 목숨을 가지고 감히 저울질할 수가 있어? 모두 미쳤어. 며칠 굶더니 모두 정신이 나갔어.”

찬우가 킁킁거리며 웃었다. 자조적인 웃음이었다. 곧 그가 벽에 붙어있던 파이프를 하나 뜯어내더니 바닥을 쿵쿵 내리쪼기 시작했다. 가장 가까이에 있던 지호와 혜나의 오빠가 그를 말렸다. 어리둥절한 채로 뒤에서 기다리던 다른 소년들도 놀라서 뭐라고 소리치며 찬우를 만류하려고 했다. 그 순간 바닥이, 어느 환풍구의 뚜껑이 와장창 소리를 내며 떨어져 나갔다. 영겨 붙어있던 아이들은 한꺼번에 아래로 떨어져 내렸다.

혜나는 오빠 위로 떨어졌다. 혜나를 끌어안은 오빠는 기침을 토해내며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옆에 찬우와 지호가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다. 두 사람은 정신을 잃은 것 같았다. 다행히 별다른 외상은 없어보였다.

혜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곳은 빈 방이었다. 새하얗고 아무것도 없는 방. 작은 창문이 하나 보였고, 구석진 곳 벽면에는 뭔가가 촘촘히 잔뜩 달려있는 이상한 전기 장치가 붙어있

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이단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다.

“왜 여기로 떨어져 내린 거야! 곧 안드로이드들이 들이닥칠 거야. 내가 최대한 시간을 벌 테니 여기서 도망쳐.”

“어디로 도망치라는 거야?”

헤나가 물었다. 이단은 그 물음에 대답하지 못했다.

“내가……, 내가 시간을 벌어볼게. 내 동생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줘.”

헤나의 오빠가 말했다. 두 소년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난 민재혁이야. 이곳은 민헤나라고, 내 동생인데……, 실수로 잘못 섞여 들어왔어. 애는 여기에 있으면 안 돼. 제발……, 여기서 무사히 나갈 수 있게 도와줘.”

심란한 표정을 짓던 이단이 한참 만에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아냐. 우리들은……, 어차피 버려졌어. 제물 같은 거지. 여기서 죽더라도 할 수 없어.”

“그들이 너희를 죽이진 않을 거야……. ‘Y’는 너희를 죽이려고 데려온 게 아냐.”

헤나의 오빠가 의문이 가득한 눈으로 이단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단은 시선을 피하며 헤나의 손목을 잡아끌었다.

“시간이 없어. 빨리 나가자.”

“오빠!”

헤나가 오빠를 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오빠를 보는 거라 생각하니 기분이 이상했다. 눈 물이 그렇그렁 차올랐다.

“같이 가, 오빠……. 같이 나가자…….”

“헤나야, 꼭 무사히 여기서 빠져나가.”

헤나의 오빠가 씩 웃어보였다. 그가 찌그러진 환풍구 뚜껑을 주워들며, 마지막으로 동생의 얼굴을 눈동자에 담았다.

“살아남아, 끝까지.”

그게 마지막이었다. 이단이 방문을 확 열어젖혔다. 언뜻 멀리서 왜앵거리는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이단은 헤나의 손목을 꼭 붙잡은 채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손목이 떨어져나갈 듯 아파왔다. 헤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혀끝에서 비릿한 피 맛이 느껴졌다.

문득 뒤를 돌아봤을 때, 저 멀리서, 오빠가 잔뜩 몰려든 안드로이드들을 향해 뭐라고 소리치며 환풍기 뚜껑을 위협적으로 휘두르는 게 보였다. 곧 방향을 틀어 모퉁이를 돌자 그 모습마저 보이지 않게 되었다. 헤나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켰다. 그리고 이단을 따라서 계속 달렸다. 달릴수록 손목의 아픔도, 오빠 생각도 모두 서서히 무더져갔다. 얼마나 달렸을까, 복도가 끝나고 금색 난간이 아름다운 나선형 계단이 눈앞에 나타났다. 두 사람은 계단을 뛰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끝이 존재하지 않을 것만 같던 계단도, 드디어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저쪽으로 가면 문이야.”

이단이 말했다. 계단을 내려와 문 쪽으로 내달리던 두 사람은 이내 멈춰서야만 했다. 1층의 넓은 홀에는 수십의 안드로이드들이 문 앞을 지키듯 잔뜩 포진하고 있었다. 마치 두 사람이 그곳으로 올 거란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젊은 여자가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멈추십시오, 이단 님.”

“비켜.”

이단이 명령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젊은 남자가 역시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데리고 있는 인간을 저희에게 넘겨주십시오.”

“싫은데.”

“데리고 있는 인간을 저희에게 넘겨주십시오.”

“아 싫다고! 문에서나 좀 떨어져!”

이단이 구석에 놓여 있던 철제 의자를 하나 들어 올려 안드로이드들을 향해 던졌다. 그러나 젊은 남자 하나가 날아오는 의자를 가볍게 붙잡아버렸다. 갑자기 이단이 혜나에게 낮게 속삭였다.

“문이 열리면, 나는 상관하지 말고 뛰어. 어쨌든 기회는 단 한 번뿐이야.”

이단이 절대로 놓지 않을 것만 같던 혜나의 손목을 놓았다. 그리고 의자를 던진 방향을 향해, 안드로이드들에게로 뛰어들었다. 혜나는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소리치려 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들은 이단을 붙잡으려고만 할 뿐, 무기를 들고 위협하거나 죽이려고 들지 않았다. 혜나의 눈에는, 왜인지 안드로이드들이 이단에게 전력으로 맞서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확실히 안드로이드들은 그를 어느 정도 봐주면서 상대하고 있었다……. 이단은 안드로이드들을 때려눕히며 계속해서 길을 만들어나갔다. 그가 손을 뺀 벽의 스위치를 누르자, 문이 덜컥거리며 열리기 시작했다. 열리는 문틈으로 눈부신 햇살이 비쳐 들어왔다.

이단이 여자 안드로이드의 머리를 바닥에 내리쥘으며 소리쳤다.

“뛰어, 민혜나!”

혜나는 달리기 시작했다. 무서웠고 겁이 났다. 하지만 이단이 목숨을 걸고 만들어준 기회였다. 무조건 성공해야 했다. 혜나는 이단이 만들어준 길을 향해 달렸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안드로이드 하나가 발목을 붙잡으려 했다. 혜나가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 뒤를 돌아보니, 이단이 잭나이프를 안드로이드의 팔을 짚어 누르고 있었다. 인조 피부가 찢겨져 나간 남자의 팔에는 은색으로 번쩍이는 기계 장치와 전선들이 드러나 보였다.

믿을 수 없게도, 열리는 문 밖으로 아버지가 보였다. 아버지가 혜나의 이름을 소리쳐 부르고 있었다. 건물을 완전히 빠져나온 혜나는 아버지의 품에 와락 안겼다. 저도 모르게 흘러나온 눈물이 두 뺨을 온통 축축하게 적시고 있었다.

그때 혜나의 아버지는, 혜나가 무사히 돌아왔다는 안도감에 문 쪽은 전혀 신경 쓰지 못했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혜나가 목격한 것을, 이단의 마지막 모습을 보지 못했다.

아버지의 품에 안긴 혜나가 문득 돌아보았을 때, 닫히는 문 사이로 이단이 웃으면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런데 남자 안드로이드 하나가 그의 뒤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한 손에는 이단이 던졌던 철제 의자를 든 채였다. 남자가 걸을 때마다 남자의 다른 쪽 손이 힘없이 덜렁거렸다. 인조 피부가 벗겨진 남자의 팔에는 이단의 잭나이프가 꽂혀 있었다.

혜나가 그의 이름을 소리쳐 불렀다.

이단이 뒤를 돌아보았다.

남자가 의자로 이단의 머리를 세게 후려쳤다.

이단이 쓰러졌다.

그리고, 문이 완전히 닫혔다.

헤나가 손등으로 눈물을 훔쳐냈다.

“미안…… 미안해. 널 두고 나 혼자 나오는 게 아니었어. 그때 어떻게든 같이 빠져 나와야 했어…….”

나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다. 그저 탁자 한 귀퉁이를 내려다보며 계속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다. 방 안은 고요했고, 이따금씩 헤나가 훌쩍이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한참 후에, 헤나가 조금 진정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아마 그 ‘Y’라는 존재가 제6구역의 모든 안드로이드들의 우두머리쯤 되지 않을까 싶어. 분명 그 ‘Y’가, 우리 오빠를 포함한 ‘그 아홉 명들’이랑 네게…… 무슨 짓을 했을 거야.”

“무슨 짓?”

“이럴테면, 기억 조작이라든가…….”

나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아무것도 믿을 수 없었고, 아무것도 확신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헤나가 들려준 얘기는 어느 정도 진실에 가까울 거라는, 그런 막연하지만 아주 강한 느낌이 들었다. 그 애는 진심으로 내게 미안해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인간이 흘리는 이런 종류의 눈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있잖아, 강이단. 우리는 그동안 몇 번, 그때 ‘본부’로 보내어졌던 아이들을 다시 만났어…….”

“뭐? 그 아이들이 다시 돌아왔어?”

내가 놀라서 물었다. 헤나는 고개를 저었다.

“처음에 우리는, 그 아이들이 탈출해서 우리에게로 돌아왔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반가운 나머지, 아무런 무기도 지니지 않은 채로 그 아이들에게 다가갔지.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 그순대니 뭐니 하면서. 그 아이들이랑……,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았어. 그 아이들에겐 우리들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 무기도 없이 다가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그 아이들의 손에 죽었어. 우리는 깨달았지. 그 아이들은 탈출해서 우리에게 돌아온 게 아니었어. 놈들의 충직한 사냥개가 되어서, 우리를 사냥하기 위해 돌아왔던 거야.”

헤나가 슬픈 표정을 지었다.

“어쩔 수가 없었어……. 우리는 그 아이들과 맞서 싸워야만 했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여섯 명. 우린 지금까지 여섯 명을 만났어.”

그 말이 내게는 이렇게 들렸다. 지금까지 여섯 명이 죽었어.

헤나가 손가락을 들어 나를 가리켰다.

“네가, 우리가 만난 일곱 번째야. 그리고 최초로 우리와 대화가 가능했던 애이기도 하고.”

“왜……, 왜 나만 대화가 가능했던 거지?”

“내 생각엔, 넌 특별한 케이스인 것 같아. 일단 넌 ‘그 아홉 명들’ 중 하나가 아니야. 처음부터 그 ‘본부’ 안에 있었지.”

잠시 방 안에 정적이 감돌았다.

“사실 나도 너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어. 우린 거기서 잠깐 만났을 뿐이었으니까. 하지만, 난 널 믿어.”

헤나가 내게 얇은 책 한 권을 건넸다. 온통 새카만 표지의 책이었다. 첫 장을 펼치니 <마녀와 아홉 마리의 사냥개들>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전단지가 붙어있던 동화책이야. 시간 나면 한 번 읽어봐.”

“무슨 내용인데?”

“글쎄……. 나도 읽어봤는데, 좀 이상한 내용이야. 사람들도 처음에는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뭐 어땠다, 얘기가 많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 책에 관심을 갖지 않아.”

헤나가 가져왔던 책들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득 헤나의 팔 사이로 빠져나온 스크랩북에 눈길이 갔다. 나는 스크랩북을 가리키며 물었다.

“그거 말인데, 좀 더 살펴볼 수 있을까?”

“이거? 그래, 원하면 그냥 너 가져도 좋아. 혹시 몰라서 몇 권 더 복제해놨거든.”

헤나가 탁자에 스크랩북을 내려놓았다. 헤나는 나머지 책들만을 챙기고 문 쪽으로 걸어가더니, 슬쩍 나를 돌아봤다.

“우리를 헤치지 않겠다는 약속, 지켜줘.”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헤나가 빙긋 웃어보였다.

밖에서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다. 이해할 수 있었다……. 나라도 그렇게 했을 테니까. 헤나의 발소리가 멀어져 갔고, 동굴 방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들었다.

나는 새카만 표지의 동화책을 내려다보았다. 손으로 표지를 더듬어보자, 반들반들한 촉감이 느껴졌다. 이상한 기시감이 들었다. 문득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이단, 잠이 안 와? 그럼 내가 동화책 읽어줄까?

“뭐야……?”

나는 다시 동화책의 제목을 내려다보았다. <마녀와 아홉 마리의 사냥개들>.

나는 첫 장을 넘겼다.

## 10

강이단, 잠이 안 와? 그럼 내가 동화책 읽어줄까?

음, 그래, 오늘은 이게 좋겠다. 제목은 <마녀와 아홉 마리의 사냥개들>이네.

옛날 옛적 어느 숲 속에 한 마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항상 외로웠습니다. 영원히 사는 자신과 달리 모든 생물들에게는 각자의 수명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날개를 다쳐 추락한 어린 파랑새 한 마리를 발견한 마녀는 새를 치료해주고 새에게 마법을 걸었습니다. 파랑새는 마녀처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마녀와 파랑새는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마녀에게 있어서 파랑새는 단 하나 뿐인 소중한 가족이 되었지요.

하지만 마녀의 마법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마녀의 마법은 파랑새를 늙어죽지 않게만 해주었을 뿐, 파랑새를 바깥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했어요. 어느 날, 잠깐 숲을 벗어났던 파랑새는 다시는 마녀에게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숲 속에서만 살아온 마녀였지만, 파랑새를 찾겠다는 일념으로, 마침내 그녀는 숲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많은 것들을 모두 등지고서…….

마녀가 파랑새의 자취를 좇아 도착한 곳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마녀는 촌장을 찾아가 자신을 숲 속 마녀라고 소개하고, 파랑새를 찾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

했어요. 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좋아, 도와주지. 하지만 그 전에, 자네가 숲 속 마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주었으면 하네. 우리 마을을 둘러싼 산에는 사람들을 해치는 무시무시한 들개들이 살고 있다네. 정말로 자네가 숲 속 마녀라면, 하룻밤 만에 들개들로부터 우리 마을을 지켜줄 큰 성벽을 쌓을 수 있을 거야.”

“네. 할 수 있어요.”

수천 개의 무거운 돌들을 마법으로 옮기고 산등성을 따라 차곡차곡 쌓아올리는 일은 마녀로서도 힘든 일이었지만, 마녀는 파랑새를 찾을 수 있을 거란 일념으로 밤을 꼬박 새워가며 성벽을 만드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 마침내 마을을 에워싼 큰 성벽이 완성되었고, 아침이 되자 마녀는 촌장을 찾아갔어요. 촌장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직 우리는 자네가 숲 속 마녀라는 것을 완전히 믿을 수가 없네. 지금 우리 마을에는 가뭄이 들어 기껏 힘들여 재배한 작물들이 모두 말라 죽어가고 있어. 정말로 자네가 숲 속 마녀라면, 하늘에서 큰 비를 내려 말라 죽어가는 작물들을 살릴 수 있을 거야.”

“네. 할 수 있어요.”

마녀는 하늘에 마을 전체를 뒤덮는 거대한 먹구름을 만들었습니다. 마녀가 만들어낸 먹구름에서 하루, 이틀…… 사흘 밤낮으로 내내 비가 퍼붓는 동안, 마녀의 힘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마녀는 파랑새를 생각하며 참고 견디었지요. 비가 그치고 난 후, 마녀는 다시 촌장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촌장은 다시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우리는 자네가 숲 속 마녀라고 확신할 수가 없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인다면, 자네가 정말로 숲 속 마녀라는 것을 인정해주겠네.”

“제가 무엇을 하면 되나요?”

곰곰이 생각하던 촌장이 말했어요.

“우리 마을 밖에 무시무시한 들개들이 산다고 한 걸 기억하나? 그 들개들을 모두 산 채로 사로잡아 내 명령을 듣도록 순하게 길들여주게. 마을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게 내게로 데려와줬으면 하네.”

“네. 할 수 있어요.”

자신이 쌓은 성벽 밖으로 나간 마녀는 곧 송곳니를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며 달려드는 거대한 들개들과 마주했습니다. 마녀는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힘을 모두 끌어 모아 사나운 들개들을 잠재우고, 잠에 취해 쓰러진 그들 하나하나에게 마법을 걸었어요. 마녀가 들개들의 숫자를 세어보니 모두 아홉 마리였습니다. 노을이 질 무렵, 마녀는 마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아홉 마리의 들개들을 데리고 촌장에게로 향했어요. 촌장은 기뻐하며 말했어요.

“좋아, 잘했네. 이만 가보게.”

“제가 숲 속 마녀라는 것을 인정해주시는 건가요? 그럼 이제 제 파랑새를 찾는 걸 도와주세요.”

“파랑새?”

촌장이 무슨 소리냐는 표정을 지었어요.

“파랑새는…… 여기에 없네. 자넨 이제 여길 떠나는 게 좋겠어.”

놀란 마녀가 말했어요.

“이건 약속과 다르잖아요. 어서 제 파랑새를 찾는 걸 도와주세요.”

촌장의 표정이 사납게 변했어요. 그는 장정들을 불러 귀찮다는 듯이 지시했어요.

“저 미친 여자를 끌어내도록 하게.”

힘을 다 써버린 마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촌장에게 쫓겨나고 말았어요. 터덜터덜 마을을 거닐던 마녀는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마을 사람들의 함성 소리를 들었어요.

“촌장님 만세!”

“신비한 힘으로 하룻밤 만에 성벽을 지어내셨다!”

“비를 내리게 하다니! 역시 위대하신 분이야.”

“오오,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그제야 마녀는 자신이 얼마나 순진하게 촌장에게 이용당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분노한 마녀는 다시 촌장을 찾아갔지만,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촌장이 아닌 거대한 아홉 마리의 사냥개들이었어요. 사냥개들은 마녀가 찾아오면 죽이라는 촌장의 명령에 따라 송곳니를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며 마녀에게로 달려들었습니다.

마녀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영원한 삶을 사는 마녀였으니까요.

하지만 마녀는 피투성이가 되어 간신히 도망치듯 마을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갈가리 찢긴 채였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파랑새를 찾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정말 슬프게 만들었어요.

캄캄한 동굴 속에 숨어든 마녀는 열흘 밤낮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마녀는 마침내 파랑새가 이미 죽었을 거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마녀는, 마을 사람들의 손에 파랑새가 죽었을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이제 그녀가 파랑새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촌장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촌장에게 주었던 아홉 마리의 사냥개들도.

열흘이 지나는 동안 다 써버렸던 마녀의 힘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마녀는 그녀가 마법을 걸었던 아홉 마리의 사냥개들을 마음속으로 불렀어요. 이윽고 마법에 홀린 아홉 마리의 사냥개들이 마을을 빠져나와 마녀에게로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마녀가 말했어요.

“촌장을…… 자유로이 산을 누비던 너희 들개들을 사냥개로 구속시켜버린 그를 죽여버려. 그리고 자유롭게 날뛰면서 사람들을 물어뜯고 집들을 무너뜨려. 작물들을 짓밟고 마을을 불태우자. 나와 파랑새와 너희들 모두를 위해……, 복수하자.”

마을로 향한 아홉 마리의 사냥개들은 길길이 날뛰며 마을을 온통 축대밭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겁에 질린 촌장은 혼자 마을 사람들 몰래 도망치려다 사냥개들에게 잔혹하게 물려 죽었어요. 마을을 지켜주던 성벽은 다시 허물어졌고, 작물들은 모두 짓밟혔어요. 영문도 모른 채 허둥거리며 사냥개들에게 쫓기던 마을 사람들은, 모두 마을을 버리고 도망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뭐야, 자는 거야? 아직 동화 안 끝났는데?

나 혼자 들떠서 열심히 읽었잖아. 바보 같이.

잘 자, 강이단.

……좋은 꿈 꾸.

뭐야, 자는 거야? 아직 동화 안 끝났는데?

다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기분이 이상해져서 더 이상 책장을 넘기지 못하고 고 책을 덮어버렸다. 분명히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내용이였다.

“누가…… 전에 나한테 이걸 읽어줬었나?”

기억을 더듬어보았다. 하지만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 내 첫 기억은, 그녀가 나를 끌어안고 흐느껴 우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 이후의 기억들은 틀로 찍어낸 것처럼 똑같은 하루하루의 연속이었다. 정지 화면 같은 단편적인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갔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긴 복도들과 수백 개의 방들로 이루어진 곳, 서둘러 복도를 지나는 사람들과 그들 사이로 바빠 날아다니는 드론들, 그리고 그녀.

그 단조로운 기억들 중, 누군가가 내게 동화책을 읽어주었던 기억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 대체 이 기시감은…….

내가 동화책을 손에 들고 생각에 잠겨있을 때, 문 밖에서 철경대는 쇠소리가 들려왔다. 수동형 구식 자물쇠가 켈그럭거리며 거칠게 흔들리고 있었다. 누군가가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고 있었다. 처음에 나는 헤나일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헤나는 자물쇠를 시끄러운 소리가 날 정도로 거칠게 다루지 않았다. 그건 헤나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숨을 죽인 채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다. 문득 헤나의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다.

너를 이곳에 데려온 걸……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서 말이다.

그 순간 문이 확 열렸고, 동시에 무언가가 내게로 핑 날아들었다. 나는 재빠르게 몸을 숙여 그것을 피했다. 벽으로 날아가 쫓힌 것은, 내가 목에 맞고 쓰러졌던 침과 같은 것이었다.

“이봐요, 왜…….”

나는 문 밖의 정체모를 괴한을 향해 뭐라고 항의하려 했지만, 다시 무차별적인 공격이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몸을 바짝 낮추고 탁자 뒤에 숨었다. 괴한이 던진 표창이 의자 등받이로 날아와 박혔다. 흥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죽어, 개자식, 너도 죽어.”

“잠깐만요, 일단 좀 진정하고…….”

방 안으로 쿵쾅거리며 들어선 것은 머리가 덩수룩한 청년이었다. 그가 뭐라고 욕지거리를 내뱉으며 내게로 달려들었다. 나는 쩌쩌하게 몸을 피하며 청년의 뒤쪽으로 경충 물러났다. 빈틈이 보였다. 하지만 웃기게도, 그 와중에 헤나와의 약속이 떠올랐다.

우리를 해치지 않겠다는 약속, 지켜줘.

내가 망설이던 중에, 청년이 다시 나를 덮쳤다. 그의 손에 날카로운 단검이 들려 있었다. 나는 그가 단검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그의 손목을 있는 힘껏 붙잡았다. 우리는 한데 엉겨 붙어 동굴 바닥을 굴렀다. 흙먼지가 뿌옇게 일어 시야가 흐려졌다. 나는 쿵쾅거리며 기침을 했다. 그 틈을 타 청년이 단검을 휘둘렀다. 가죽재킷의 소매가 찢겨나갔다. 나는 피가 흐르는 왼팔을 움켜잡고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베인 팔뚝이 욱신거리며 아파왔다. 우리는 잠시 서로를 노려보며 가만히 서 있었다. 청년의 눈에 광기가 흐르고 있었다. 대화가 통할만한 상대가 아닌 것 같았다.

청년의 눈치를 살피던 나는 재빨리 문 쪽을 향해 내달렸다. 길은 전혀 알지 못했지만, 이 빌어먹을 동굴 방에서 알지도 못하는 작자에게 죽을 수는 없었다. 동굴 밖으로 이어진 길은 구불구불 이어진 긴 터널 같았다. 울퉁불퉁한 동굴 벽과 천장 위의 종유석들이 뒤로 확확 스쳐 지나갔다. 나는 불안하게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 멀지 않은 거리를 두고, 청년이 끈질기게 나를 뒤쫓아오고 있었다.

나는 가쁜 숨을 내뿔으며 소리쳤다.

“이봐요! 아무도 없어요? 도와줘요!”

저 앞으로 문이 두 개 나타났다. 내가 소리치는 것을 들었는지, 문 하나가 벌컥 열렸다. 아, 남자였다. 헤나의 아버지였다. 반가움과 안도감이 찌르르 번져왔다. 그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더니, 곧 상황을 파악했는지 굵은 쇠막대 같은 것을 들고 이쪽으로 달려왔다.

혜나의 아버지가 끼어들자, 놀란 청년이 무심결에 단검을 휘두르려고 했다. 혜나의 아버지가 청년의 공격을 힘겹게 막아내며 말했다.

“규환 군, 정신 차려. 자네 마음은 잘 알지만, 저 애는 아무 잘못이 없어.”

청년이 울부짖었다.

“아저씨……, 저 자식이 형을 죽였어요! 형을 죽였다고요!”

“저 애가 죽이지 않았어. 자네도 잘 알잖나. 그건 어쩔 수 없는 사고였어…….”

청년이 단검을 벽에다 거칠게 내다뺐다. 그가 한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중얼거렸다.

“……죄송해요.”

“자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네.”

청년은 좀 쉬겠다고 말하고는 힘없이 돌아섰다. 천천히 멀어져가던 그는 모퉁이 너머로 완전히 사라지기 직전에, 다시 한 번 내 쪽을 힐끗 돌아보았다. 서늘한 살의가 느껴졌다. 나는 오싷한 기분이 들었다.

“팔을 다쳤구나.”

혜나의 아버지가 내게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남자에게 이끌려가 다친 팔을 치료 받았다. 남자가 소독한 상처에 붓대를 감아주며 말했다.

“정말 미안하게 됐구나. 아까 일은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 녀석, 최근에 사고로 형을 잃고 계속 힘들어 했었거든.”

나는 청년의 울부짖음을, 절규를 떠올렸다. 저 자식이 형을 죽였어요. 형을 죽였다고요…….

“혹시…… ‘본부’로 보내졌다 돌아온 아이가 그랬나요?”

남자의 얼굴에 핏기가 가셨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맞아. 혜나가 얘기해줬구나.”

“네……. 지금까지 여섯 명을 만났다고 들었는데요. 모두들, 처음의 저처럼…….”

당신들을 공격해왔나요? 그래서 당신들도 그 아이들을 공격했고?

남자는 침음했다.

“나는……, 네가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너는 ‘그 아홉 명들’ 중 하나가 아니잖아. 그럼 원래부터 ‘본부’ 안에 있었다는 애긴데……. 하지만 나는 네가 누구든 간에, 너를 믿기로 했다. 혜나한테 전부 들었다. 네가 혜나를 구해줬었다면서.”

남자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가 진심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다.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저는…… 기억도 나지 않는 일이에요.”

내가 약간 쑥스러워하며 대답했다. 남자는 희미하게 웃는 것 같았다.

“그래,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지?”

“아마 이곳에 오래 머무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계속 남아 있으면, 아까 그 사람이…….”

‘사람’이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으며, 나는 나도 모르게 움찔했다.

“……분명 몇 번이고 다시 찾아올 거예요. 계속해서 절 죽이려 들 겁니다. 저를 보는 눈에서 진심 어린 살기가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엔 그 사람 외에도 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미안하구나.”

“아뇨, 아저씨가 사과하실 일은 아니에요.”

나는 결코 환영받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으므로, 이곳에 그리 오래 머무를 수는 없었다. 가능한 한 빨리 이곳을 떠나야 했다.

전쟁, 안드로이드, 그리고 그들의 ‘본부’……. 한참 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겨있던 나는, 마침내 한 가지 결심을 굳혔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망설이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저…… 언제까지고 여기서 신세를 질 수는 없는 일이니, 준비가 되는 대로 이만 이곳을 떠나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왔던 곳, 그 ‘본부’라는 곳으로 돌아가볼까 합니다. ‘Y’라는 존재를 만나서,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싶습니다.”

“‘본부’로 돌아가겠다고? 너무 위험하지 않겠나?”

남자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아이들을 만나서 같이 동행하자고 설득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그들과 같은 상황이니, 어쩌면 그들도 저와는 대화가 통할지도 몰라요.”

남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 밤 당장 떠날 생각이나?”

“네. 할 수만 있다면요.”

“알겠다.”

남자가 문 쪽으로 향하려다 말고 다시 나를 돌아보았다.

“필요한 건 내가 최대한 구해다 줄 테니, 말만 해.”

나는 그에게 내가 있던 방에서 스크랩북과 동화책을 가져다달라고 부탁했다. 한참 후에 다시 돌아온 그의 손에는 식량이 가득 든 큼지막한 배낭과 내가 부탁한 책 두 권, 그리고 지도가 들려 있었다.

남자는 침상용 테이블 위에 제6구역의 지도를 펼쳤다. 그는 펜을 들고 지도 위의 여섯 군데에다 가위표를 쳤다. 모두 시내로부터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씩 다른 구역과 교신을 시도해보기 위해 바닷가나 강가를 찾을 때를 제외하면, 거의 항상 시내 쪽으로만 다녔어. 시내 쪽이 식량을 구하기가 쉽거든. 체법 멀쩡하게 남아있는 편의점이나, 하다못해 고장 난 캔 자판기라도 발견할 수 있으니까. 그 여섯 명의 아이들도……, 모두 시내에서 만났었다. 내 생각엔, 나머지 아이들은 시내가 아닌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혹시 짐작 가는 곳이 있나요?”

남자는 제1해안과 제2해안, 제4해안, 강 하구에 각각 동그라미를 쳤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른 구역과 교신을 시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방문했던 곳은 제1해안과 제2해안, 제4해안, 강 하구 정도가 전부다. 제3해안과 제5해안은 전쟁 중에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려서 접근하는 게 아예 불가능했고……. 그러니 나머지 아이들이 시내 외곽에 있다면, 아마 여기 중에 있겠지. 실제로 너를 만난 곳도 제2해안이었고.”

나는 남자가 건네준 지도를 반듯하게 접어 재킷의 안쪽 주머니 속에 넣었다. 며칠 분의 식량과 두 권의 책이 든 배낭을 둘러멘 나는 남자를 따라 동굴 방을 나섰다. 우리는 천장 위로 대롱대롱 달린 구식 전구들이 흐릿한 빛을 뿜어내는 터널 속을 나란히 걸었다. 간간히 문들이 나타났고, 이따금씩 문을 뚫고 경계하는 표정으로 지나가는 우리를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었다. 나는 아랑곳 않고 그들을 지나쳤다.

더 이상 문들이 나타나지 않게 되었을 때쯤, 갑자기 남자가 아차 하며 멈춰 섰다.

“잠시만 기다려다오.”

다급한 표정으로 어디론가 달려간 남자는 오래지 않아 다시 나타났다. 헉헉거리며 돌아온 그의 손에는 내 잭나이프와 소형 폭탄이 들려 있었다.

“미안하구나. 다른 것들은 찾지 못했는데……. 표창이라도 몇 개 더 가져다줄까?”

내가 잭나이프와 폭탄을 재킷의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대답했다.

“아뇨, 괜찮아요. 전 다른 아이들과 대화를 해보고 싶을 뿐이에요. ‘본부’로 가더라도, 그들이 다짜고짜 저희를 공격해오지도 않을 것 같고요. 당신들을 죽이라고 저희를 보낸 게……, 바로 그들이었으니까.”

잠시 망설이던 나는 입을 열었다.

“만약 당신들이 진짜이고, 제가 알고 있던 것들이 모두 가짜라면…… 저는, 제가 알고 있던 세계를 파괴하겠습니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계속, 묵묵히 앞을 보며 걸어갈 뿐이었다.

나는 문득 잊고 있던 것을 떠올렸다.

“하루에 한 번 씩, 오전 8시 15분에 제2해안 모래밭으로 배급용 드론이 날아올 거예요. 거기에 제가 없더라도, 제가 아직 자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가져온 물건들을 내려놓고 그냥 가버릴 겁니다. 쓸 만한 생필품들과 식량이 많을 테니 가져다 쓰세요. 모래밭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가 쓰던 위장용 텐트와 침낭도 나올 겁니다.”

“……고맙구나.”

남자가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멀리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칠혹 같은 밤하늘 위로 환한 새벽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이쪽으로 날이 밝을 때까지 쪽 걸어가다 보면 제1해안이 나올 거다.”

남자가 주름진 손을 들어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헤나한테 들었겠지만, 나한테도…… 네 또래의 아들이 있었단다. 아직 만나지 못했으니,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어. 부탁이다. 만약에 만난다면, 만나서 대화가 통한다면, 설득시킬 수 있다면…… 그 애를 돌려보내다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터널을 완전히 나서기 전, 나는 다시 한 번 남자를 돌아보았다. 남자가 손을 흔들었다.

“몸조심해라.”

“……헤나한테 안부 전해주세요.”

이렇게 말없이 가버려서 조금은 미안했지만, 차라리 이게 나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다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예리하게 휘어진 초승달이 머리 위에서 창백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침내 긴 터널이 끝났다.

정찰용 안드로이드와 드론들은 생각보다 많이 보이지 않았다. 그들과 마주치게 되면 ‘달아나는 적들을 발견하고 정신없이 뒤쫓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변명할 생각이었지만, 나는 만약을 대비하여 최대한 그들의 눈을 피해 움직이기로 했다. 나는 희미한 달빛에

의지해 소리 죽여 돌무더기와 쓰레기더미를 넘었다. 반쯤 허물어져 내린 상점 건물들과 갈라진 도로 위로 아무렇게나 쓰러져 있는 가로등들도 지나쳤다. 다시 거대한 ‘산’들이 나타났다. 전쟁의 잔해들이 끝없이 이어졌다. 나는 계속해서 걸었다. 걸을 때마다 하나의 아버지가 챙겨준 큼직한 배낭이 등 뒤에서 흔들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어느덧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나는 멈춰 서서 선홍빛으로 물든 동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멀리 수평선이 보였다.

내가 제1해안에 도착했을 무렵에는 날이 완전히 밝아있었다. 뽀얀 모래밭이 길게 펼쳐져 있었던 제2해안과는 달리, 제1해안은 온통 거뭇거뭇한 진흙으로 덮여있었다. 진흙 위로 내려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하얀 거품이 철썩거리며 해안으로 밀려들었다. 녹두색의 바닷물이 출렁일 때마다 신 냄새가 풍겼다.

이곳에 없는 걸까.

그렇게 생각한 순간, 멀리 누군가가 기울어진 난간에서 아래로 폴쩍 뛰어내렸다. 진흙 위로 착지한 그는 진흙이 묻은 두 손을 탁탁 털었다. 그가 멍하니 서서 기묘한 표정으로 내 쪽을 바라보았다.

내 또래로 보이는, 키가 큰 곱슬머리의 소년이었다.

“.....안녕.”

내가 인사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린 같은 처지야. 나도 너와 같은 임무를 받았었어. ‘그들로부터 지하로 통하는 길을 알아내라’, ‘발견하는 즉시 그들을 죽여라’. 맞지?”

거리가 멀어서, 그가 무슨 표정을 짓고 있는지 보이지 않았다. 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내 말 들려? 뭐라고 말 좀 해봐!”

나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에게로 다가갔다. 홀린 듯이 내 쪽을 쳐다보는 그의 표정이 어딘가 혼란스러워 보였다.

“.....‘적’인가?”

그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이상한데. ‘적’이 아닌가?”

“난 ‘적’이 아냐.”

내가 딱 잘라 말했다. 그가 눈을 가늘게 떴다.

“내 말이 들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질퍽거리는 진흙투성이 해안을 빠져나와 기울어진 난간 아래에 나란히 기대어 앉았다. 사방이 고요했고, 이따금씩 철썩거리는 파도 소리와 웅웅거리는 바람 소리만이 들려왔다.

“나는 강이단이야. 제2해안에서 왔어.”

“난..... 민재혁이야.”

나는 깜짝 놀라 그를 돌아보았다. 설마.

“너, 여동생 있지.”

“여동생?”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난 가족이 없어. 2년 전 전쟁 때, 정신을 잃은 채 적들에게 사로잡혀 있던 나를 다른 사

람들이 발견해서 구출해왔어……. 이후로 계속 다른 사람들과 지내다가, 지하로 숨어든 적들을 섬멸시키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훈련을 받았어. 우리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6구역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졌고…….”

“민재혁, 내 말 잘 들어. 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전부 거짓일 가능성이 있어. 난 말야, 바로 몇 시간 전에 지하에서 네 여동생이라는 애를 만났었어. 지하에 있는 건 돌연변이 지성체 같은 게 아니었어. 그들은…… 인간이었어.”

나는 그에게 지하에서 내가 보고 들었던 것들을 모두 이야기해주었다. 2년 전 인간과 안드로이드 간의 전쟁이 있었고, 전쟁에서 패한 인간들은 안드로이드들로부터 도망쳐 지하로 숨게 되었다는 것, 이후 안드로이드들이 지상을 완전히 점령했다는 것, 제6구역의 안드로이드들의 우두머리로 추정되는 ‘Y’라는 존재가 식량과 아홉 명의 소년들을 맞교환하기를 원했고, 제6구역의 사람들은 거기에 동의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알기로 재혁도 그 아홉 명의 소년들 중 한 명이었다는 것을.

재혁은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표정이었다.

“여기 증거도 있어. 지난 2년 동안의 신문 기사들이야.”

내가 배낭을 벗어 안에서 스크랩북을 끄집어냈다. 재혁은 거의 빼앗다시피 하며 스크랩북을 가져갔다. 페이지가 팔랑팔랑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이게 뭐야, 말도 안 돼…….”

재혁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중얼거렸다. 스크랩북을 탁 소리가 나게 덮은 재혁이 물었다.

“그럼……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모두 가짜라는 거야?”

“……아마도.”

재혁이 복잡해진 표정으로 내게 스크랩북을 돌려주었다. 나는 스크랩북을 받아 배낭 안으로 다시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다.

재혁은 고개를 파묻고 웅크린 채 한참 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나는 망설이며 입을 열었다.

“나는……, ‘Y’라는 존재를 만나보고 싶어. 할 수 있다면,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싶어. 그래서 나와 같은 처지인 아이들을 찾아다니고 있었던 거야. 혹시 괜찮다면…… 나랑 동행하자, 민재혁. 같이 ‘본부’로 돌아가서, 진실을 밝혀내자.”

재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만약 네 얘기가 모두 사실이라면 말야……. 그 ‘Y’라는 놈은 왜 사람들에게 식량을 내주고, 우리 같은 어린애들을 데려간 거지? 우리는 왜 기억을 잃고 이런 데서 존재하지도 않는 돌연변이 지성체를 감시하고 있는 거고?”

“나도…… 잘 모르겠어.”

재혁이 나를 훑 돌아보았다.

“그리고 넌, 우리와 함께 훈련도 받지 않았는데 우리와 같은 임무를 부여받고 나왔어. 난 너와 안면조차 없는데……. 너는, 대체 뭐야?”

나를 가만히 노려보던 그가 이내 어깨를 으쓱여보였다.

“그래 뭐, 네가 누구인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지.”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내게 불쑥 손을 내밀었다. 나도 얼떨결에 그의 손을 잡고 엉거주춤 일어섰다.

“‘Y’인지 뭔지 하는 거 만나러……, 같이 가줄게. 이런 엄청난 얘기를 들었으니, 나도 너

한데 뭔가 하나쯤은 해줘야겠지.”

갑자기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아무튼, 내게 아버지와 여동생이 있던 말이지……. 그 ‘지하’에 말이야.”

“그래. 하지만 지금까지 만났던 아이들이 모두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한편으로 네 아버지는 너를 만나는 걸 두려워하셨어.”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라. 그럴 만도 하지.”

“무슨 말이야?”

재혁은 허공을 올려다보았다.

“우리는 적들과의 전투를 대비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받았었어. 가장 기초적인 훈련 중에, 우리 편과 적을 정확히 구분하는 게 있었지. 너도 알겠지만, 겉모습만 봐서는 상대가 우리 편인지 적인지 알 수가 없어. 적들은 모습을 바꾸어 우리를 모방할 수 있다고 했으니깐. 그래서 우리 아홉 명은 오른쪽 홍채에다 얇은 필름형 센서를 부착시켰어. 처음에는 눈을 깜박일 때마다 좀 따끔거렸지만, 곧 익숙해졌지.”

나는 그의 오른쪽 눈을 쳐다보았다. 그의 갈색 눈동자가 언뜻 녹색으로 반짝인 것 같았다.

“그 후 오른쪽 눈으로 세상을 보니, 신기하게도 주위 사람들이 은색으로 빛나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아홉 명만은 센서에 붉은색으로 비치더라. 사람들이 얘기하길, 우리는 모두 적들에게 사로잡힌 경험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적들에게 오염이 되었다고 하더라고. 우리 아홉 명만을 제외하고, 이 오른쪽 눈에 붉게 비치는 존재들은, 겉모습이 아무리 사람 같아도 모두 적이라고 했어.”

재혁이 자신의 오른쪽 눈을 가리켜 보았다.

“우리는 센서에 붉게 비치는 존재들을 맞닥뜨리면, 망설임 없이 빠르고 민첩하게 공격을 할 수 있어야 했어. 그게 완전히 몸에 밸 수 있도록 반복해서 훈련을 했지. 사람들은 분명 적들이 우리에게 대화를 시도해올 거라고 했어. 우리를 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적들과 절대로 대화를 나눠선 안 된다고 배웠어. 대화는 차치하고, 그들이 하는 말 한 마디조차도 귀 기울여 들어선 안 된다더군. 적과의 타협은, 곧 죽음이겠어.”

나는 비로소 헤나의 아버지가 소년들과 대화가 불가능했다고 한 이유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

“내가 처음에 널 계속 이상하게 쳐다봤던 건, 네가 두 가지 색으로 보였기 때문이었어.”

“……뭐?”

“너 말이야……, 은색과 붉은색이 뒤섞여 보여.”

무슨……. 나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난 말이지, 지금까지 센서에 은색으로 비치는 존재가 인간이고, 붉은색으로 비치는 존재가 인간인 척 모습을 바꾼 돌연변이 지성체라고 알아왔어. 하지만 만약 네가 들려준 얘기가 모두 사실이라면, 이런 가정을 세워볼 수 있겠지. 사실 센서에 은색으로 비치는 존재는 안드로이드고, 붉은색으로 비치는 존재가 진짜 인간이다……. 어때, 꽤 그럴듯한 가정이지 않아?”

문득 다친 왼팔이 옥신거리는 게 느껴졌다. 나는 왼팔을 꼭 움켜쥐었다.

“그럼……, 은색과 붉은색이 뒤섞여 있는 너는 대체 뭘까.”

정적이 흘렀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멀리 일렁이는 녹두색 바다를 바라보았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이…… 혼란스럽기만 했다.

재혁이 다시 느릿느릿하게 말했다.

“시내로 간 여섯 명의 아이들이……, 모두 죽었다고 했지.”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재혁은 힘없이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묵념하듯,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한참 뒤에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나머지 두 명이 어디에 있을지 대충 알 것 같아. 우선 강 하구 쪽으로 가자. 거기에 지호가 있을 거야. 혹시 지도 있어?”

나는 재킷의 안쪽 주머니에서 구깃구깃한 제6구역의 지도를 꺼냈다. 한참 동안 지도를 들여다보던 재혁이 손가락으로 어느 방향을 가리켰다.

“저쪽 방향으로 가면 될 거야. 당장 출발하면, 아마 오후 늦게면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다시 배낭을 둘러메었다. 그리고 벌써 저만치 앞서 가고 있는 재혁을 따라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흐릿한 하늘 위로 드문드문 나타나는 정찰용 드론들을 피해 ‘산’들에 바짝 붙어서 이동했다. 폐허 속에서 내가 가져온 식량으로 끼니를 대충 때우고,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걷는 동안 우리는 그다지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재혁은 아직 나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았다.

우리는 금이 짙은 콘크리트 다리에 도착했다. 다리를 따라 걸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리 아래로 강이 보이기 시작했다. 황토색의 강물이 느릿느릿하게 흐르고 있었다. 강 하구에는 악취 나는 쓰레기더미들이 잔뜩 쌓여 있었다. 재혁이 주변을 둘러보며 소리쳤다.

“황지호—!”

조금 기다리자, 다리 저편에 누군가가 나타났다. 키가 작고 깡마른 소년이었다. 재혁이 내게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말하고는, 그에게로 다가갔다. 둘은 간간히 내 쪽을 힐끗거리며 오랫동안 얘기를 나누었다. 나는 그들의 대화가 끝날 때까지 잠자코 기다렸다.

대화가 끝나고, 깡마른 소년이 씩 웃어 보이며 두 팔을 활짝 벌린 채 내게로 다가왔다. 그가 감탄하듯이 중얼거렸다.

“와— 진짜 은색이랑 붉은색이 뒤섞여 보이잖아? 완전 신기한데!”

“……난 강이단이야. 제2해안에서 왔어.”

“난 황지호야. 뭐, 처음 만난 사인데 우리 악수라도 할까?”

그가 킬킬거리며 오른손을 내밀었다. 나는 말없이 그 손을 잡았다.

우리는 지호의 텐트 안에 모여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호는 의외로 내가 들려준 얘기를 잘 받아들였다. 아주 흥미로워하면서.

“와, 그럼 우린 지금까지 완전히 낯인 거야? 우리가 함께 지냈던 사람들은 모두 깡통 로봇들이고, 우리가 지냈던 곳은 그들의 ‘본부’고? 진짜 사람들은 지하에 숨어 있고? 완전 재밌네, 이거.”

“재미있어 할 일이 아니거든.”

재혁이 눈을 흘겼다. 곰곰이 생각하던 지호가 조용히 말했다.

“그런데, 만약에 ‘본부’에 갔을 때 그들과 싸울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 거야? 거기엔 수백 명이 넘는…… 음…… 안드로이드들이 있을 텐데.”

“너희들…… 무기는 얼마나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는 것들, 전부 꺼내볼래?”

재혁의 제안에 따라 우리는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모두 꺼내어 모아보았다. 내가 찍나

프와 소형 폭탄을 꺼내어 보이자, 지호가 신기해하며 말했다.

“폭탄을 가지고 있어? 엄청 귀한 건데. 어디서 난 거야?”

“아 그게……, 누가 줬어.”

“누가?”

재혁이 물었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문득 잊고 있었던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긴 머리카락을 허리께까지 늘어뜨린, 나를 향해 언제나 환하게 웃어주던…….

“이거, 내가 손 좀 봐도 될까?”

지호가 폭탄을 만지작거리며 물었다.

“그건 왜?”

“그냥, 줘.”

지호가 헤헤 웃었다. 우리는 지호가 비축해둔 식량으로 저녁을 해결하고, 각자 할 일을 찾아 몰두했다. 지호는 몇 가지 연장을 가져와 내 폭탄을 이리저리 건드려댔다. 내가 준 지도를 들여다보고 있던 재혁이 말했다.

“기계 같은 거 다루는 걸 좋아하더라고. 내버려둬. 저 분야에는 선수니까, 실수로 폭탄을 터뜨리거나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그래…….”

“내일은 제4해안으로 가볼 거야. 하지만 난 누군가가 제4해안을 배정받았다고만 어렵듯이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누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 아무튼 여기서 제4해안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은…….”

제1해안, 강 하구, 그리고 제4해안. 지금껏 살아남은 아이들이 위치한 곳은 해나의 아버지의 짐작대로였다. 재혁은 지도 위로 손가락을 놀리며 내게 ‘지름길’에 대해 열심히 설명해주었다. 밤이 깊어갔고, 재혁은 연신 하품을 하더니 먼저 잠자리에 들겠다고 했다. 지호는 아직도 텐트 저편 구석에 돌아앉아 폭탄을 만지는 데에 몰두하고 있었다. 간헐적으로 달각 달각하는 쇠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재혁을 따라 침낭 속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기분이 이상했다. 낮선 친구들과 낮선 곳에서 함께 밤을 보내다니.

한참이 지나도 잠이 오지 않아, 나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득 구석에 기대어 놓은 내 배낭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배낭을 열고 스크랩북을 꺼내었다.

나는 스크랩북의 페이지 몇 장을 훑히 넘겼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지난 2년간의 역사를 기록한 활자들이 지면에서 쏟아져 나와 내게 유령처럼 진득하게 달라붙는 것 같았다. 나는 진창에 빠진 것처럼 허우적거리며 낮선 과거를 헤매고 있었다. 나는 다시 몇 페이지를 더 넘겼다. 팔랑, 팔랑, 팔랑.

그런데.

언뜻 내가 아는 얼굴이 보인 것 같았다.

나는 페이지를 넘기던 것을 멈추고 짙막한 신문 기사에 실린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미간을 찡그렸다. 거기에, 사진 한 귀퉁이에, 내게 아주 익숙한 얼굴이 자리하고 있었다. 꽃다발을 안은 채 환하게 웃고 있는 두 남자 뒤에 숨어 어정쩡하게 고개를 내밀고 있는 사람. 수줍은 듯 어딘가 어색한 미소를 띠고 있는 그 사람은 분명.

틀림없이 그녀였다.

나는 맥박이 뛰는 것을 느끼며 빠르게 신문 기사를 읽어 내려갔다.

안드로이드의 새로운 시대 열리나

‘울프하운드’사, 복잡한 의사소통 가능한 안드로이드 선보여

지난 11일, ‘울프하운드’사는 새로운 가정용 안드로이드 기종 라온-비245를 선보였다. 라온-비245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해 사람의 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복잡하고 다양해진 표정 변화와 훨씬 발전한 의사소통 능력으로 사람과 더욱 밀접하게 교감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출시 전부터 많은 이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아오던 라온-비245는 지금까지 4백만 대가 넘게 판매되었으며, 계속해서 인기몰이를 하며 판매량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울프하운드’사의 대표 이사인 최영권(58)씨는 “이번 안드로이드 기종 라온-비245의 개발을 주도한 것은 나였지만, ‘울프하운드’의 훌륭한 기술력이 뒤따라주지 않았다면 분명 이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진 못했을 것이다. 특히 최선을 다해 이번 프로젝트를 도와준 동생 영태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최영권씨의 동생 최영태(54)씨는 S대 기계공학부 석사 출신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다녀온 후 ‘울프하운드’사에 들어가 줄곧 회사의 경영을 도와왔다.

사진은 왼쪽 최영권(58), 중앙 최영태(54), 오른쪽 강유라(27, 최영권씨의 오촌 조카).

14

강유라, 강유라, 강유라……. 나는 그 이름을, 그동안 알지 못했던 그녀의 이름을 계속해서 되뇌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내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얘기한 적이 없었다. 정말로 그녀는 ‘울프하운드’의 대표 이사의 가족인 건가? 그런데 왜 지금은 안드로이드들과 함께 ‘본부’에 있는 거지? 다른 가족들은? 아. 나는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심지어 그녀의 이름조차도. 처음 봤던 그 순간부터 줄곧 그녀에게 의지해왔음에도, 그녀를 한 치의 의심도 없이 믿어왔음에도, 나는.

그녀는, 대체 누구지?

머릿속이 복잡했다.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심지어 그녀마저도 의심해야만 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불쾌했다. 나는 계속 잠을 뒤척이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아침으로 배급용 드론이 가져다준 빵을 나눠먹은 후, 우리 세 명은 제4해안으로 떠나기 위해 각자 짐을 꾸렸다. 내가 배낭을 정리하고 있을 때, 지호가 내게 다가와 무언가를 내밀었다. 지호에게 맡겼던 내 폭탄의 모양새가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이건…….”

“폭탄의 폭발력을 좀 더 강화했어. 신중하게 쓰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타이머 장치도 달았는데……, 하아, 부품이 부족해서 말이지. 아쉽게도 10분이 한계야.”

내게 타이머 장치의 사용법을 가르쳐준 그가 멋쩍게 웃었다.

“혹시 나중에 유용하게 쓰일지도 모르잖아? 물론…… 쓸 일이 없다면 더 좋겠지만 말야.”

“……고마워.”

폭탄을 이리저리 살펴보던 나는 혀를 내둘렀다. ‘기계 같은 거 다루는 걸 좋아한다’더니, 정말 숨씨가 보통이 아니었다. 내가 다시 지호 쪽을 돌아봤을 때, 그는 이미 저만치 멀어져

자기 짐을 챙기며 재혁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두 사람이 거의 속닥거리다시피 해서 대화의 내용은 잘 들리지 않았다.

“……은 누가 배정받았을까?”

“……만 아니었음 좋겠는데. 만약 ……라면, 분명 우릴 공격해올 거야……. 최악의 경우…… 각오해야 할지도…….”

지호의 텐트를 나선 우리는 지도를 든 재혁을 선두로 금이 간 다리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폐수가 흐르는 강과, 강 하구를 따라 잔뜩 쌓인 쓰레기더미들이 발 아래로 멀어져갔다. 폐허가 된 거리를 걸으면서, 지호는 내게 이런저런 얘기를 들려달라고 졸라댔다. 무뚝뚝한 편인 재혁과는 달리 그는 활기차고 호기심이 많았다. 나는 두 사람에게 헤나와 헤나의 아버지를 만났던 것에 대해 자세히 얘기해주었다.

재혁은 말이 없었다. 곰곰이 생각에 잠긴 것 같았다. 아마 기억나지 않는 자신의 아버지와 여동생의 모습을 그려보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문득 지호가 들릴락 말락 하게 중얼거렸다.

“……돌아갈 곳이 있구나. 민재혁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구나.”

“뭐?”

내가 지호 쪽을 돌아보자, 그가 어색하게 웃어보였다.

“네가 그랬잖아. 선발된 ‘그 아홉 명들’은 대부분 전쟁 중에 부모와 헤어져 버렸거나 고아 출신인 소년들이었다고. 민재혁은 특이한 경우였고. ……그렇다면 나는 어떨을까. 나는, 고아였을까?”

지호의 웃음에서 씩씩함이 묻어나왔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알 수 없어 그저 조용히 시선을 내리깔았다.

재혁이 다 왔어, 라고 말했을 때는, 이른 봄녘의 시린 해가 빈 하늘에 높다랗게 걸려 있었다. 우리는 멈춰 서서 재혁이 가리키는 방향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돌출된 낭떠러지 아래로 수천 년의 세월 동안 깎이고 쌓여 만들어졌을 암벽과 기암괴석들이 몇 십 미터쯤 이어졌고, 영원히 닿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끝자락에 녹두색의 바닷물이 잔잔히 일렁이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 모습이 기묘하게도 지옥의 간헐천이 독을 뿜으며 혀를 날름대는 것처럼 보여 어딘가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그때 옆에서 지호가 중얼거렸다.

“이런, 최악이다. 망했네. 제4해안을 배정받은 사람이 하필…….”

“강이단, 일단 여기를 좀…… 빨리 벗어나야 할 것 같은데.”

재혁이 당황스런 목소리로 말했다.

“왜?”

“설명할 시간 없어. 빨리! 뛰어!”

지호가 소리쳤다. 하지만 몸을 획 돌리려는 순간, 누군가가 나를 덮쳐 넘어뜨렸다. 무언가가 내 오른쪽 어깨를 향해 쉬익 날아들었다. 나는 얼른 몸을 비틀었지만, 그것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다. 예리한 칼날이 오른쪽 팔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바닥을 구른 나는 헉 숨을 들이키며 내 앞에 멈춰 선 낯선 소년을 올려다보았다. 부스스한 머리카락의 무표정한 소년은 손에 쥔 단검을 내게로 겨냥한 채 천천히 나를 향해 다가왔다.

그때 지호가 소년에게로 확 덤벼들었다. 두 소년이 엇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사이, 재혁이 허겁지겁 내게로 달려왔다.

“뭐하고 있어, 빨리 일어나!”

“어떻게 된 거야? 저 녀석은…….”

“저 녀석은 위험해. 박찬우라는 녀석인데……, 말이 통할 상대가 아냐.”

지호의 비명 소리가 들렸다. 무표정한 얼굴의 소년이, 찬우가, 지호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재혁이 달려가면서 찬우에게 표창을 던졌다. 찬우는 뒤로 물러서며 가볍게 그것을 피했다. 그 사이 재혁은 바닥에 맥없이 쓰러져 있는 지호에게로 다급하게 다가갔다. 하지만 멀리서 봐도 지호의 상태가 썩 좋아 보이지 않았다. 복부에서 피가 진득하게 배여 나왔다. 지호의 셔츠에 붉은 자국이 서서히 번져가고 있었다……. 마치 새빨간 꽃이 점점이 피어나는 것처럼.

“왜…….”

같은 편일 텐데, 나는 모르더라도 재혁과 지호와는 분명 안면이 있을 텐데. 왜 다짜고짜 우리를 공격해온 건지, 나로서는 알 수가 없었다. 재혁은 위험하다고, 말이 통할 상대가 아니라고 했다. 주먹을 움켜쥔 나는 다시 찬우에게로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는 가뿐히 내 뒤로 몸을 피하더니, 나를 밀쳐 넘어뜨렸다. 바닥에 부딪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왔다. 속이 울렁거렸고 어지러웠다. 등 뒤로 그가 나를 세게 밟아 누르는 감각이 느껴졌다.

“제길, 비켜…….”

나는 반쯤 상체를 돌려 찬우를 올려다보았다. 몸서리가 칠 정도로, 무섭도록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마치 안드로이드처럼.

순간 나는 그의 눈에서 낯설지 않은 무언가를 보았다. 그건 분명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눈이었다……. 동굴 방에 있을 때 나를 공격해왔던 청년이 떠올랐다. 모퉁이 너머로 사라지기 직전 나를 힐끗 돌아보던 청년의 눈과, 찬우의 눈이 겹쳐졌다. 증오와 원망으로 얼룩진, 살의로 가득 찬 눈.

내가 눈을 찡그리며 물었다.

“……너는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지. 뭣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난 거야?”

찬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그를 밀쳐내고 뒤로 훌쩍 물러났다. 옆에서 기회를 보던 재혁이 찬우를 덮쳤고, 두 사람은 한데 엉겨 붙어 거칠게 싸우기 시작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숨을 몰아쉬며 생각하던 와중에, 옆에서 험뎠는 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강이단……, 저 녀석은 글러먹었어. 완전히 미쳤거든……. 훈련할 때부터 저 녀석은 말이지, 우리든 다른 사람들이든……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무조건 공격하려 들었어……. 게다가 세긴 더럽게 세단 말이야, 나쁜 새끼. 일대일로 겨뤘을 때……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었어…….”

지호가 복부의 상처를 움켜잡은 채 휘청거렸다. 그의 손은 완전히 피범벅이었다. 내가 옆에서 부축해주자 그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신음을 흘렸다.

“누워 있어! 출혈이 심해.”

“아니, 내 말 잘 들어……. 저 괴물 같은 자식은 말이지, 우리가 모두 죽은 걸 제 눈으로 확인할 때까지…… 계속 쫓아오면서 미친 듯이 공격해댈 거야……. 이대로 가다간, 우린 ‘본부’ 근처도 가보기 전에 전부 저 미친놈한테 죽어. 그러니까……, 너희는 꼭 ‘본부’로 돌아가서, ‘Y’인지 뭔지를 만나라.”

“……그게 무슨 소리야? 넌 안 가겠다는 소리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밀려들었다. 지호가 픽 웃었다.

“민재혁한테…… 모든 게 다 끝나고 나면, 꼭 가족에게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전해줘. 돌아갈 곳이 있는 놈은, 무사히 돌아가야지 않겠어. 아—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건, 그 얼마나

기쁜 일인가.”

지호가 노래하듯 중얼거렸다. 그리고 다음 순간, 지호가 내 부축을 뿌리치고는 순식간에 어디론가로 달려 나갔다. 그는 뒤엎켜 싸우고 있는 두 사람을 향해, 정확히는 찬우를 향해 비틀거리며 달려들었다. 찬우가 손에 든 단검을 휘둘렀다. 핏방울이 후두둑 떨어졌다. 하지만 지호는 아랑곳 않고 계속해서 찬우에게로 다가갔다. 한 걸음, 한 걸음. 아무리 공격을 해도 소용이 없자 찬우는 조금 놀란 것 같았다. 그가 천천히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한 걸음, 한 걸음.

찬우의 뒤로 낭떠러지의 끝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그제야 지호의 생각을 알아차렸다.

나는 달리기 시작했다. 지호를 향해. 낭떠러지를 향해. 녹두색의 혀를 날름대는 지옥의 간혈천을 향해.

안 돼…… 제발…… 시간이 멈추었으면.

재혁이 “안 돼!”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지호가 찬우를 향해, 공중을 향해 몸을 날렸다. 순식간에 두 사람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져버렸다.

언뜻 침병, 하는 소리가 들려온 것 같았다.

나는 낭떠러지 끝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영원히 닿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저 아래로, 녹두색의 바닷물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잔잔히 일렁이고 있었다.

15

제4해안의 낭떠러지에도 밤이 찾아들었다.

나는 낭떠러지 끝에 위태롭게 걸터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에 가린 상현달이 흐릿한 빛을 토해냈다. 안개처럼 내린 어둠 속에서 눈물 같은 새벽별들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재혁은 나뭇가지를 어설피게 엮어 만든 두 십자가 앞에 몇 시간째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의 뒷모습이 한없이 무거워 보였다. 쓸쓸해 보였다. 그래서 차마 다가갈 수가 없었다. 나는 그저 멀찍이 서서 그의 뒷모습을, 비딱하게 세워진 영성한 두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을 따름이었다.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가슴께가 빠근하고 명치가 확 막혀왔지만, 참 이상하게도. 나는 그들을 위해 눈물 흘릴 자격마저 없는 게 아닐까. 나는 몸을 움크리고 고개를 파묻었다. 세상에서 가장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다.

날이 밝아서야 재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무슨 표정을 짓고 있는지 잘 알 수 없었다. 그가 발을 질질 끌며 내게로 다가왔다.

“……가자. 우린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어.”

뜻밖의 말이었다. 나는 그를 조용히 올려다보았다. 재혁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본부’로 가서 ‘Y’를 만나자……. 지호의 마지막 부탁대로.”

나는 눈을 감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4해안을 떠나기 전, 재혁은 마지막으로 벼랑 끝에 세워진 두 십자가를 돌아보았다. 우리는 잊고 싶지 않은 것들을 각자의 눈동자에, 가슴에 가득 새겨 넣었다.

우리는 한 마디 대화도 나누지 않고 묵묵히 앞만 바라보고 걸었다. 나는 재혁이 전날 오후부터 줄곧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어떻게든 점심을 먹

기를 권하고 싶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말을 걸기가 망설여졌다.

그때, 갑자기 우뚝 멈춰 선 재혁이 나를 돌아보며 물었다.

“여기서 점심 먹고 갈래?”

우리는 돌무더기와 전쟁의 잔해들 속에 몸을 숨기고 짐을 풀었다. 나는 배낭에서 옥수수 통조림을 꺼내 재혁에게 권했다. 재혁이 받아든 통조림의 뚜껑을 으드득 뜯어냈다. 노란 옥수수 알갱이들이 몇 개 공중으로 튀어 올랐다.

“그 박찬우란 녀석은, 처음 봤을 때부터 굉장히 이상한 놈이라고 생각했어……. 그 녀석은 다른 사람들, 나와 친구들, 그리고 적들을 전혀 구분하지 못했어. 눈앞에 살아 움직이는 것이 나타나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무조건 달려들어 공격하려고 했지……. 그래서 그 녀석과 합동 훈련은 그다지 많이 하지 못했어. 녀석은 항상 혼자 격리되어 생활했거든. 사람들 말로는 그 녀석이 그렇게 된 게, 적들한테 오랫동안 잡혀있으면서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었어. 우린 녀석을 연민했고, 어느 정도 이해하려고 했어…….”

재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푹 떨어뜨렸다.

그에게 괜찮다고, 네 탓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부질없는 짓인 것만 같아 그만두었다. 커다란 대리석 덩어리 위에 걸터앉은 나는 발 아래로 시선을 떨어뜨렸다. 그러다 문득 재킷의 오른쪽 소매가 찢겨져 있는 것에 눈길이 갔다. 찬우와 싸우다 생긴 상처였다. 나는 찬우가 휘두른 예리한 칼날이 오른팔을 파고들 때의 기묘한 느낌을 기억했다…….

양팔이 모두 상처투성이가 되었구나.

그런데, 왼팔과 오른팔의 상처가 무언가 달랐다……. 뭐라고 딱 집어 말할 순 없었지만, 두 상처에는 분명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

한참이 지나서야 나는 오른팔의 상처에서 느껴진 위화감의 이유를 깨달았다.

왜 핏자국이 없지?

오른쪽 소매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했다. 나는 허겁지겁 가죽재킷을 벗었다. 재혁이 이상한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왜 그래?”

“그냥 좀, 더워서…….”

나는 얼버무리며 셔츠의 오른쪽 소매를 걷어 올렸다. 그리고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을 목격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내 오른팔에 난 상처를 가만히 노려보았다.

찢겨져 나간 인조 피부 사이로, 은색으로 번쩍이는 기계 장치와 전선들이 드러나 보였다.

“……역시.”

어느새 재혁이 바로 옆으로 다가와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 상처를 감추려 했지만, 재혁이 내 팔을 세계 붙들었다. 그리고 내 팔의 상처를, 그 안으로 들여다보이는 은색으로 번쩍이는 기계 장치와 전선들을 들여다보았다. 알 수 없는 공포가 밀려들었다. 나는 그의 손을 세차게 뿌리쳤다.

“내가 말했잖아. 너, 은색과 붉은색이 뒤섞여 보인다고.”

재혁이 눈을 가늘게 떴다.

“더 자세히 말해줘? 너 말야, 몸의 오른쪽 절반이랑 심장 부분, 그리고…… 좌뇌가 은색으로 보여.”

“그게…… 무슨…….”

목소리가 떨려나왔다. 귓가에 내 심장 소리가 들려왔다. 생동하는 존재의 고독하고 강렬한 삶의 의식이었다. 삶에 대한 강한 의지가 맹렬한 펌프질과 처절한 팔딱거림으로 치환되

어 가슴 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 두근거림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나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이게 정말로 생명의 박동 소리가 맞는 걸까. 혹시 어찌면, 기계가 규칙적으로 짝어내고 있는 소리인 것은 아닐까.

나는 정말로……, 살아있는 걸까.

“강이단, 너는……, 인간이야?”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아니면, 안드로이드야?”

나는 여전히 대답할 수 없었다.

재혁이 허공을 보며 중얼거렸다.

“어쨌든 이걸로 어느 정도 확실해졌어. 센서에 은색으로 비치는 존재는 안드로이드고, 붉은색으로 비치는 존재가 진짜 인간인 거야. 네 경우를 보아하니, 은색은 아마 안드로이드 내부 기계 장치의 쇠붙이색이 아닐까 싶은데. 붉은색은…… 인간의 몸속을 도는 피의 색이려나.”

바윗돌 위에 걸터앉은 재혁이 뚜껑을 딴 통조림을 다시 집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다. 입맛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후였다.

‘본부’의 위치는 나와 재혁 모두 잘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도를 보며 쉽게 방향을 찾을 수 있었다.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잿빛 하늘 위로 시린 봄별이 쏟아졌다. 나는 오른팔을 내려다보았다. 찢겨진 재킷 소매 사이로 피 묻은 붕대가 보였다. 오른팔의 상처가 보이지 않도록, 왼팔을 묶었던 붕대를 옮겨 감은 것이었다.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어느덧 밧그스름하게 물든 서녘 하늘로 해가 기울어지고 있었다. 노을로 얼룩진 지평선 저편으로, 그토록 다시 보고 싶었던, 혹은 다시 보고 싶지 않았던 곳이 보이기 시작했다. 육중하고 매끄러운 회색 몸체가 존립에 필수적인 복잡한 기계 장치들을 가지처럼 사방으로 뻗은 채 미지의 성곽과도 같이 높다랗게 솟아나 있었다.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어딘가 환영 같았던 건물이 점차 뚜렷해지더니, 거대한 전함 같은 모양새가 되었다.

“‘본부’다.”

내가 중얼거렸다.

어디선가 웅웅거리며 날아온 구형(球形) 드론 두 대가 우리 두 사람의 흉채를 감식했다. 한 드론이 여자 목소리로 상냥하게 말했다.

“제1해안, 민재혁 님. 제2해안, 강이단 님. 임무를 다하지 않고 귀환한 사유를 밝혀주십시오.”

“보고할 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재혁이 침착하게 말했다. 내가 끼어들어 덧붙였다.

“……우리는 이곳에 있는 ‘Y’라는 자를 만나보길 원해.”

재혁이 내 쪽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두 드론은 움찔거리더니, 대답도 하지 않고 어디론가로 휙 날아가 버렸다. 재혁이 소리를 낮춰 물었다.

“너, 저들한테 반말을 해?”

“응? 어. 반말이 몸에 뻘나봐. 같이 지내면서 물들었나…….”

“무슨 말이야?”

재혁이 되물었다. 아, 그녀 얘기를 하다니. 나는 아차 했지만, 마침 덜컹거리는 소리가 나며 문이 열렸기 때문에 다행히 대화는 거기서 끝이 났다.

“들어오라는 건가?”

“그렇지 않을까? 일단 들어가 보자. 조심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천천히 ‘본부’의 안으로 들어섰다. 익숙한 공간. 넓은 홀의 사방으로 끝없이 이어진 긴 복도가 여러 개 뻗어있는 게 보였다. 한쪽으로는 금색 난간이 아름다운 나선형 계단이 자리하고 있었고, 높은 천장 위로는 인공 태양광 전등이 줄지어 박혀 있었다. 우리는 주위를 둘러봤지만, 사람들은, 혹은 안드로이드들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문이 완전히 닫히자, 정적이 감돌았다.

“왜 아무도 없지?”

“그렇게……. 이제 어떡하지?”

그때, 어떤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타박, 타박, 타박. 가볍고 경쾌한 발소리였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우리는 거의 동시에 나선형 계단 쪽을 돌아보았다.

마침내 발소리의 주인이 완전히 계단을 내려와 우리 앞에 멈춰 섰다. 재혁이 오른쪽 눈을 찡그리며 중얼거렸다.

“……붉은색인데?”

나는, 그 사람을 알고 있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그 이름을 소리 내어 발음해보았다.

“강…… 유라…… 씨.”

그녀가 움찔, 몸을 떨었다.

그녀가 나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갈색 눈동자에 내가 가득 비쳤다.

나는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돌아왔어요.”

“아는 사람이야?”

옆에서 재혁이 물었지만, 나는 그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게 많아요…….”

“강이단. ……그리고 옆에는, 친구?”

그녀가 계단 위를 가리켰다.

“우선 올라가서 얘기하자.”

“어딜 간단 말이죠?”

재혁이 미심쩍다는 듯 물었다. 나는 그의 한쪽 어깨에 손을 얹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강이단, 너와 내가 함께 지내던 방으로.”

재혁이 나와 그녀를 번갈아보았다. 재혁은 설명을 요구하는 듯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지만, 나는 그녀에 대해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말없이 계단 쪽을 향해 눈짓했다.

일단 올라가보는 게 어때.

계단을 걸어 올라가며, 나는 앞서가던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네요.”

그녀가 나를 돌아보았다. 긴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빙긋 웃음을 미소만 지어보이고는, 다시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나는 재혁에게 어깨를 으쓱여 보였다.

긴 복도를 따라 걸어간 우리는 마침내 어느 방 앞에서 멈춰 섰다. 내가 잘 아는 방이었

다.

그녀가 문에 달린 센서에 오른쪽 눈을 가까이 댔다. 문이 뿅 소리를 내며 열렸다. 방으로 들어선 나는 조금 감격스런 기분이 들었다. 모든 게 떠나기 전 그대로였다. 온통 새하얀 방. 폭신하고 깨끗한 침대 두 개, 아담한 벽장, 네모난 테이블과 두 개의 철제 의자, 작고 예쁜 창문, 창가에 놓인 조막만한 선인장 화분.

그리고 새하얀 벽을 따라 붙어있는 여러 장의 ‘산’과 ‘숲’의 사진들.

나는 메고 있던 배낭을 벗어 벽에 세워두고, 내 침대 위에 털썩 걸터앉았다. 폭신한 느낌에 절로 기분이 좋아졌다. 정말 돌아왔구나. 집으로, 그녀의 곁으로,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나는 잠시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침대 매트릭스 속에 파묻히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린 후, 재혁이 큰 소리로 물었다.

“당신은 누구니까? 인간…… 입니까?”

“그건 내가 묻고 싶은데.”

그녀가 내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두 사람에게로 다가갔다.

“저쪽은 누구니? 친구?”

“아, 그게…….”

내가 얼버무리자, 재혁이 짜증스런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네, 친굽니다. 일단은요. 다시 묻죠. 당신은 누구니까?”

“일단 좀 앉을까?”

“계속 말 돌리지 마시죠.”

그녀는 테이블과 가까운 자신의 침대 위에 걸터앉았다. 나는 재혁에게 눈짓했다.

일단 같이 앉자.

나와 재혁이 의자를 끌어다 앉자,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래. 어디까지 알고 왔니?”

“네?”

“강이단, 어디까지 기억해?”

기억? 나는 미간을 찡그리며 물었다.

“무슨…… 말이죠?”

듣다 못한 재혁이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이봐요, 저희는 알고 싶은 게 많아요. 지금 뭔가가 아주 많이 잘못되었어요. 저와 다른 친구들은 지하로 숨어든 적을 섬멸시키기 위해 훈련을 받고, 제6구역 곳곳으로 흩어졌어요. 하지만 지하에 돌연변이 지성체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았어요! 왜…… 제 친구들은…….”

재혁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그가 눈을 질끈 감았다 떴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강이단은 지하에서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죠. 2년 전에 인간과 안드로이드 간의 전쟁이 있었고, 전쟁에서 패한 인간들은 지하로 숨어들었으며, 안드로이드들이 지상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했어요. 만약 그들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곳은…… 안드로이드들의 제6구역 ‘본부’ 쯤 되지 않을까 싶군요. 그렇지 않나요?”

한참 동안 말이 없던 그녀가, 내게 조용히 물었다.

“지하에서 인간들을 만났니?”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재혁을 흘깃 쳐다보았다.

“저희는 진실을 알고 싶어서 이곳으로 돌아온 거예요. ……혹시 이곳에 ‘Y’라는 자가 있

나요? ‘Y’는 지금 어디에 있죠?”

“그래……. 기억이 돌아온 게 아니구나. 지하의 인간들이 얘기해준 거였구나. 나를 ‘강유라씨’라고 부를 때부터 어느 정도 짐작은 했었지만…….”

“아, 당신 이름은 신문 기사에서 우연히 봤었어요.”

나는 배낭에서 스크랩북을 꺼내 두 사람이 보는 앞에서 허겁지겁 페이지를 뒤적였다. 마침내 내가 찾던 신문 기사가, 사진이 나타났다. 사진을 본 그녀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다.

“나 맞아. 스물일곱 살 때라면, 2년 전 사진이겠네.”

“그럼, 정말로 ‘울프하운드’의 대표 이사의 가족이었어요? 왜 지금은…… 이런 곳에 혼자 있는 거죠?”

내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그녀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너희한테 얘기해줄게.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진실’을.”

그녀가 나와 재혁을 한 번 씩 번갈아보더니, 이야기를 시작했다.

16

천재.

사람들은 유라를 그렇게 불렀다.

부모님이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다는 것은 유라의 인생에 있어서 그다지 큰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유라와 유라의 어린 남동생은 아이가 없는 숙부의 집에서 귀여움을 받으며 행복하게 자랐다. 유라는 기계를 만지는 것을 좋아했고, 숙부가 힘들게 구해다준 골동품 라디오나 구식 시계 장치, 복잡한 태엽 장난감을 뜯어내어 분해하고 다시 재조립하며 밤늦게까지 시간을 보내곤 했다. 숙모는 그런 유라의 천재성을 알아보았다. 그래서 유라가 좀 더 성숙해지자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었다. 유라는 여전히 기계에 관심이 많았고, 물리학 공부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유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했다. 모든 사람들이 유라가 훌륭한 공학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유라는 의과대학에 지원했다.

유라의 남동생은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했다. 그래서 항상 집 안에서만 지내야 했다. 남동생은 늘 집 밖으로 나가고 싶어 했다. ‘산’과 ‘숲’을, 지구상에 얼마 남지 않은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싶어 했다. 유라는 유능한 의사가 되어 남동생을 치료하고 싶었다.

그 즈음에, 숙부 부부가 불임 치료에 어렵사리 성공했다. 숙모는 아기를 가졌고, 곧 무사히 아기가 태어났다. 아기가 까르르 웃을 때마다 부부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다. 자연스럽게 유라의 남동생은 점차 뒷전이 되었다. 그래서 어느 날 부부가 아기를 데리고 2주 동안 여행을 떠났을 때, 유라의 남동생은 혼자 집 안에 쓸쓸히 남겨졌고, 그가 갑작스런 심장 발작을 일으켜 정신을 잃어가고 있을 때에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동생이 계속 전화를 받지 않자 걱정된 유라는 잠을 내어 숙부의 집을 찾았다. 그렇게 유라의 남동생은 정신을 잃은 지 네 시간 만에야 발견되었다. 동생의 심장은 죽어가고 있었다. 의사들은 동생의 심장이 이미 회복 불가능이라고, 길어봐야 일주일이면 죽고 말 거라고 말했다. 그리고 어쩌면, 인공 심장을 이식하면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인공 심장은 너무 비쌌다. 뒤늦게 병실을 찾은 숙부는 유라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숙부 부부가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다. 유라는 정신을 잃은 동생을 끌어안고 소리 죽여 울

었다. 동생을 위해 의과대학에 입학했고 마침내 수련의가 되었는데도, 눈앞에서 죽어가는 동생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유라에게 이상한 생각이 떠올랐다.

인공 심장을 살 수 없다면, 내가 인공 심장을 만들자.

유라는 대학에서 썼던 두꺼운 의학 서적들을 병실로 가져와 심장에 대해 미친 듯이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다. 각종 공구들과 부품들, 그리고 다양한 재료들을 주문했다. 그녀에게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다. 밤을 새서 첫 번째 인공 심장을 완성했다. 하지만 너무 어설프고, 작동이 잘 되지 않았다. 유라는 잠든 동생의 머리맡에 앉아 인공 심장을 만드는 데에 계속 몰두했다. 유라는 스물한 번째로 완성한 인공 심장을 대학 시절 그녀가 신뢰했던 교수에게 가져가 보여주었다. 교수는 까무러칠 듯이 놀랐다. 그건 유라가 혼자 공부해서 만들어냈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완성도 높은 작품이었다. 시중에 나와 있던 값비싼 인공 심장들과 별반 다를 게 없었다. 교수는 유라에게 몇 가지 보완할 점에 대해 알려주었다. 유라가 스물여덟 번째로 만든 인공 심장을 교수에게 보여주었을 때, 마침내 교수는 고개를 끄덕여보였다. 그건 더 이상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인공 심장이었다.

유라는 동생의 인공 심장을 이식하는 수술을 집도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유라는 나이도 어렸고, 아직 일개 수련의일 뿐이었다. 병원의 수많은 의사들과 대학의 교수들이 반대했다. 하지만 유라가 인공 심장을 만드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았던 교수가 유라의 편을 들어주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유라가 만든 인공 심장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교수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교수가 내놓은 스물일곱 개의 유라의 실패작을 직접 보고 나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은 어린 천재 의사의 능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유라의 수술 집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동안의 수련의로서의 우수한 실적이 높게 평가되었고, 심장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친동생의 사정이 참작되었다. 마침내 아주 이례적으로, 수련의의 수술 집도에 대한 허락이 떨어졌다.

유라는 성공적으로 동생의 인공 심장 이식 수술을 끝마쳤다.

동생은 다시 살아났다. 유라는 깨어난 동생을 껴안고 끝없이 눈물을 쏟았다.

이 일로 유라는 굉장히 유명해졌다. 그녀는 일약 스타가 되었다. 신문에서, 뉴스에서 대대적인 보도가 났다. 이후 유라는 텔레비전 방송에도 몇 번이나 출연했다.

그 모든 것들이 잠잠해지고 유라의 이름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서서히 희미해져 갈 무렵의 어느 날, 누군가가 유라를 찾아왔다. 자신을 ‘울프하운드’사의 대표 이사 최영권이라고 소개한 늙은 남자는, 유라에게 같이 일해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해왔다. 처음에 유라는 그 제안을 거절했다. 하지만 영권은 끈질겼고, 몇 번이고 유라를 계속 찾아왔다. 급기야 그는 숙부에게 큰돈을 건네며 부탁했다. 유라를 달라고. 회사에서 데리고 일하며 충분한 보수를 지급할 것과 동시에 아주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하겠노라고. 숙부는 유라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분명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거야. 어쩌면 엄청난 성공을 거두어 큰 명성과 막대한 부를 누리게 될지도 모르지.

한시도 아기를 품에서 떼어놓지 못하는 숙모가 눈에 들어왔다. 숙모의 얼굴에서 미소가 가실 줄을 몰랐다. 동생이 죽어가고 있을 때, 뒤늦게 병실을 찾은 숙부가 인공 심장의 값을 전해 듣고는 표정을 구기며 미안하다고 말하던 것이 떠올랐다. 그래. 그들은 동생이 갑작스런 심장 발작을 일으켜 정신을 잃어가고 있을 때에,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먼 곳에서 아기와 함께 단란한 가족여행을 즐기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이제 숙부는 돈에 눈이 멀어 자신에게 제발 이 집을 나가달라고 부탁하고 있었다…….

마침내 유라는 영권의 제안을 수락했다. 다만 동생과 함께, 라는 조건을 덧붙였다. 영권은 조건을 받아들였다. 유라는 수련의를 그만 두고, 영권을 따라 ‘울프하운드’사에 들어갔다.

‘울프하운드’사는 로봇, 그중에서도 사람과 닮은 안드로이드를 만들어내는 곳이었다. 역사가 꽤 오래되어 한국의 안드로이드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였다. 유라는 안드로이드 개발자들과 함께 일하게 되었다. 인간의 생체 조직을 모방하여 안드로이드에 적용시키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주된 업무였다. 유라는 인공 심장을 만들었던 경험을 되살려 연구에 박차를 가했다. 유라가 개발한 인조 피부와 인공 근육을 적용시킨 새로운 안드로이드 기종이 출시되었고, 더욱 인간다워진 안드로이드는 대중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유라는 행복했고, 끊임없이 연구에 몰두했다. 유라가 개발한 기술을 적용시킨 새로운 안드로이드 기종이 잇달아 출시되었다. 사람들은 환호했다. ‘울프하운드’사의 매출이 눈에 띄게 상향 곡선을 그려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언론사에서 ‘울프하운드’사를 찾았다. 유라는 우연히 인터뷰 현장 근처를 지나던 중, 호기심에 영권이 인터뷰를 하는 것을 엿듣게 되었다. 영권이 자신의 노력과 업적에 대해 얘기할 것을 생각하자 가슴이 뛰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영권은 이렇게 말했다.

“이번 안드로이드 기종 라온-비245의 개발을 주도한 것은 저였지만, ‘울프하운드’의 훌륭한 기술력이 뒤따라주지 않았다면 분명 이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진 못했을 겁니다. 특히 최선을 다해 이번 프로젝트를 도와준 동생 영태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군요.”

“라온-비245의 개발을 혼자 주도하셨다고요.”

“네. 지금까지 출시된 기종에 적용되었던 기술들은, 전부 제가 직접 개발을 주도했습니다. 제가 아이디어를 냈고, 동생과 함께 상용화 방안을 연구했지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사 님!”

영권과 그의 동생 영태가, 기자가 건네준 꽃다발을 받아 들고 공중에 떠 있던 드론형 카메라 앞에 나란히 섰다. 그때 숨어있던 유라가 불쑥 튀어나와 두 사람 옆에 붙어 섰다.

“저도 같이 사진 찍을래요.”

기자가 영권에게 누구냐고 물었다. 영권은 난감해하며 둘러댔다. 제 오촌 조카입니다……, 제가 옆에 데리고 있으면서 후원해주고 있지요. 기자는 능력도 출중한데다 인격까지도 훌륭하신 분이라며 영권을 추켜세웠다. 유라는 어이가 없었지만, 입을 꼭 다물었다. 펄 소리가 나며 드론형 카메라에서 불빛이 터졌다.

언론사 사람들이 떠나고 난 후, 유라는 영권에게 따졌다.

“왜 거짓말을 했어요? 이번 기술의 개발을 주도한 건 저였잖아요!”

유라는 한참 동안이나 영권에게 언성을 높이며 대들었다. 지나가던 연구원들이 큰 소리에 놀라 멈춰 서서 유라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영권은 계속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영태는 그런 두 사람을 멀리서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다. 실망한 유라는 진행하고 있던 연구를 내팽개치고 동생과 함께 쓰고 있던 방으로 돌아가 나오지 않았다. 동생은 잔뜩 화가 난 유라를 애써 달래주려 노력했다.

그 날 밤 늦게, 영태가 유라의 방에 들이닥쳤다. 영태가 잠든 유라를 거칠게 침대 밖으로 끌어내었다. 겁에 질린 유라가 비명을 질렀다. 영태에게서 술 냄새가 확 끼쳐왔다. 그가 횡설수설 떠들어댔다. 네년이 뭔데 우리 형님한테 행패야. 줄개 연구원들도 잔뜩 보고 있는데 말이야, 영, 형님이 얼마나 기분이 더러웠겠어. 네가 그렇게 잘났어? 혼자선 아무것도 못하는 주제에, 좀 예뻐해 줬다고 기어오르기는. 주먹이 날아들었고, 구둣발이 배를 걷어찼다.

끔찍한 고통이 그녀를 집어 삼켰다. 온몸의 세포들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다. 소란에 잠이 깬 동생이 놀라서 영태를 제지하려고 했다. 하지만 어린 소년은 자기보다 훨씬 덩치가 큰 중년의 남자에게 전혀 상대가 되지 못했다. 동생은 저만치 날아가 침대 앞에 고꾸라졌다. 네놈은 뭔데 나서서 끼어들어. 동생에게 다가간 영태가 거칠게 발길질을 해댔다. 급기야 영태는 무거운 탁자를 들어 올려 동생에게로 집어던졌다. 유라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필사적으로 외쳤다. 그만해요, 제발. 제가 잘못했어요.

영태가 씩씩거리며 돌아간 후, 유라는 힘겹게 동생에게로 기어갔다. 동생은 탁자에 깔린 채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동생의 오른쪽 다리가 피범벅이었다. 유라는 소리 죽여 울며 동생의 다리를 지혈했다.

이튿날, 유라는 상처투성이가 된 몰골로 영권에게 가서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얘기했다. 피멍이 든 얼굴과 팔의 상처를 보여주었다. 영권은 그저 알겠다, 라고만 말했다. 다시 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동생을 간호하며 온종일 시간을 보냈다.

밤이 되자, 다시 영태가 찾아왔다.

방문을 걸어 잠갔지만 소용이 없었다. 방의 손잡이는 열쇠로 열 수 있는 구식이었고, 영태에게는 영권이 준 마스터키가 있었다. 너 말이야, 형님한테 일러바쳤다며. 그런데 어찌나. 형님은 날 묵인해줄 생각인 것 같던데. 술기운으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영태가 히히 웃었다. 영태는 다시 때리고, 구타하고, 폭력을 휘둘렀다. 영태가 악마처럼 속삭였다. 일해, 여기서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밥값을 해야지. 언제까지 이 방구석에 처박혀 있을 거야.

악몽 같은 밤들이 계속 이어졌다. 한 번은 밤을 틈타 동생과 함께 탈출을 시도했다가, 영태에게 걸려 죽도록 얻어맞았다. 그 뒤로 탈출은 꿈도 못 꾸게 되었다. 영태에게 심하게 매 타작을 당한 이후, 동생의 오른쪽 다리 상태가 훨씬 더 나빠졌다. 동생은 다리에 감각이 없다고 했다.

마침내 유라는 방을 나섰다. 연구실로 돌아온 그녀는 영권과 영태의 눈을 피해 같이 일하는 연구원들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유라를 슬슬 피해버렸다. 유라는 세상에 완전히 홀로 남겨진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의 편은 아무도 없었다.

동생의 다리 상태가 점점 극악으로 치달았다. 유라는 영권을 찾아가 '연구'를 위한 것이니 몇 가지 재료를 좀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영권은 그것들을 흔쾌히 구해다 주었다. 사실 그것들은 다름 아닌 의료 장비들과 수술 도구들이었다. 유라는 동생의 다리를 치료하려고 했지만, 이미 수술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다. 유라는 인공 심장을 만들었던 것을 떠올렸다.

다리도 가능할까.

유라는 시도해보기로 했다. 연구실에서 안드로이드 개발에 쓰이는 재료들을 조금씩 훑쳐모았다. 계속해서 다리의 세포와 조직, 근육을 대신할 인공의 것을 만드는 데에 몰두했다. 영권은 유라가 손을 놓았던 연구에 다시 열중한다며 기뻐했다. 그가 영태를 좀 타일렀는지 어쨌는지, 한동안 영태는 유라의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덕분에 유라는 밤마다 천천히 동생의 고장 난 오른쪽 다리를 고쳐나갈 수 있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마취에서 깨어난 동생은 신기해하며 계속 다리를 움직여보았다.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잘 움직여. 동생은 유라에게 어떻게 다리를 치료한 거냐고 물었지만, 유라는 대충 얼버무려버렸다. 동생이 인공 심장을 어떻게 구했냐고 물어왔을 때와 같이.

동생의 다리를 무사히 치료했지만, 유라는 정신적으로 서서히 지쳐가기 시작했다. 나는 언제까지 이 지옥 속에서 꼭두각시처럼 살아가야 하는 걸까. 그러다 문득, 머릿속이 텅 빈 안드로이드가 실험대에 누워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연구원들이 안드로이드의 머릿속에

인공지능 컴퓨터 칩을 삽입하고 있는 게 보였다.

다른 안드로이드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울프하운드’사에서는 윤리적인 문제를 우려했다. 안드로이드 개발자들은 인간의 뇌만큼은 모방할 수 없었다. 회사는 인간의 뇌의 생체 구조와 정보 처리 방식을 모방하여 안드로이드에 적용시키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했다. 안드로이드의 머리에는 인공지능 컴퓨터 칩이 내장되어 있었다. 아무리 안드로이드의 외형이 인간에 가까워졌다 하더라도, 안드로이드는 컴퓨터의 지배를 받는 로봇일 뿐이었다. 그저 입력된 명령대로만 일을 처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만약에, 인간의 뇌를 완벽하게 재현해낼 수 있다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인간의 뇌를 안드로이드에게 주게 된다면.

처음에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주체할 수 없이 불어나고 확장되어 유라의 머릿속에서 자꾸만 몸피를 키워나갔다.

밤마다 자주 악몽을 꾸곤 했다. 아기를 안은 채 환하게 웃고 있는 숙모의 얼굴이 어렴풋이 보였다. 그 얼굴은 영권을 따라가면 분명 더 행복해질 거라고 자신을 설득하던 숙부의 얼굴이 되었다가, 전부 제가 직접 개발을 주도했습니다, 라고 말하던 영권의 얼굴로 변했다가, 밤마다 악마처럼 찾아와 자신을 폭행하고 동생을 구둑발로 걷어차던 영태의 얼굴로 바뀌었다가, 마지막으로 온몸에 피멍이 든 자신을 슬슬 피하며 자기들끼리 뭐라고 속닥거리던 연구원들의 얼굴이 되었다.

모든 인간들에 대해 신물이 났다. 유라는 자조적인 웃음을 지었다.

인간의 뇌를 가진 안드로이드는, 인간과는 다르지 않을까.

안드로이드에게, 가장 진화한 영장류만이 비열하게 독점해왔던 위대한 생각 회로와 판단 장치를 제공해보자. 그리하여 적어도 어떤 인간들보다는 훨씬 더 인간다운 안드로이드를 만들어보자.

인간이 만들어낸 이 지옥에서 유일하게 이 지옥에 종속되지 않은, 가장 완벽한, 인간이 아닌 것을 완성해보자.

유라는 영권과 영태, 다른 연구원들의 눈을 피해 조심스럽게 실험을 거듭해나갔다. 훔쳐 모은 재료들로 인간의 뇌를 빚어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뇌라는 피조물은 하나의 작은 우주였다. 유라가 시도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세계를 빚어내려는 것과도 같았다. 계속되는 실패에도 유라는 포기하지 않았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두려움과 인내와 숙고의 시간들이 덧없는 굴레처럼 속절없이 흘러갔다…….

마침내 유라는 성공했다고 생각했다.

유라는 모두가 잠든 밤을 틈타 1459번째로 빚어낸 뇌의 복제본들을 잔뜩 가지고 곧 출시될 상품들이 쌓여있는 창고에 몰래 숨어들었다. 유라는 포장을 뜯고 잠들어 있는 여자 안드로이드를 하나 꺼내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의 머리를 분해하고 칩을 빼내었다. 원래 있던 조직들과 신경들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뇌의 각 부위에 연결시키는 복잡한 과정을 거친 후에, 안드로이드의 머리를 다시 재조립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어느새 먼동이 터 오고 있었다.

이내 창고를 빠져나가려던 유라는 무언가를 발견하고 화들짝 놀라 멈춰 섰다. 상체를 일으켜 앉은 여자 안드로이드가 무표정한 얼굴로 유라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유라가 어색하게 인사했다.

“……안녕.”

몇 초 후에, 안드로이드가 유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너- 나- 어머니.”

놀란 유라는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안드로이드가 유라가 손에 들고 있던 것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거, 쥐, 나.”

유라에 손에 들려 있던 것은, 1459번째로 빚어낸 뇌의 복제본들이 수백 개 들어있는 거대한 자루였다. 생각에 잠겨있던 유라는 이내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자루를 내려놓았다. 비틀거리며 창고를 빠져나온 후, 유라는 곧장 방을 향해 내달렸다. 동생이 잠들어 있는 방으로 돌아온 유라는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여자 안드로이드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너- 나- 어머니.

유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에, ‘울프하운드’사의 안드로이드들이 주인의 명령을 듣지 않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주인들은 하나같이 이상한 증언을 했다. 안드로이드가 잔뜩 찡그린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 있거나 계속 서성거리는 것을 봤다고. 마치 안드로이드가 ‘생각’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고.

‘울프하운드’사의 안드로이드들이 하나둘씩 집을 나가 모습을 감추기 시작했다. 비싼 돈을 주고 안드로이드를 구입한 사람들은 회사로 몰려가 분통을 터뜨렸다. 회사는 난감해했다. 회사도 안드로이드들이 단체로 이상 행동을 보인 이유를 모르는 것 같았다. 회사는 급하게 전문 요원들을 집합시켰다. 요원들은 사라진 안드로이드들을 찾아 데려오기 위해 곳곳으로 흩어졌다. 며칠 뒤, 요원들은 전부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하나같이 목의 급소 부분에 날카로운 것으로 깊게 베인 자국이 나 있었다. 모두 같은 위치, 같은 각도, 같은 깊이였다. 신문에서, 뉴스에서 대대적인 보도가 났다. 사람들은 겁에 질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울프하운드’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제작된 안드로이드들을 도난당하는 사건이 속출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사람들은 자신의 이웃을 의심했고, 다음으로는 세상에 몇 개체 남지도 않은 산짐승, 들짐승이란 놈들을 의심했다. 하지만 곧 도둑의 정체가 밝혀졌다. 언제부턴가 그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대놓고 당당하게 안드로이드들을 빼앗아가기 시작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했다. 그들은 안드로이드의 머리를 격파시켜 내장된 칩을 빼내었어요. 그리고 기절한 안드로이드를 데리고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안드로이드 도둑의 정체는, 사라졌던 ‘울프하운드’사의 안드로이드들이었다.

얼마 안 가 한국의 모든 안드로이드들이 사람들의 곁에서 사라져버렸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에, 전쟁이 시작되었다. 인간과 안드로이드 간의 전쟁이.

시민들은 힘을 모아 ‘울프하운드’사 건물에 불을 질렀다. 백 년 가까이 안드로이드를 생산해오던 역사적인 공장이 불에 활활 타올랐다.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겁에 질린 채 우왕좌왕 움직였다. 혼란을 틈타 유라는 동생과 함께 무사히 건물을 빠져나왔다. 건물들과 자동차들이 불탔다. 도시는 아비규환이었다. 두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 계속해서 달렸다. 도중에 두 사람은 실수로 몇 번이나 안드로이드들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젠 꿈쩍없이 죽겠구나, 하고 생각할 때마다 안드로이드들은 두 사람에게 순순히 길을 터주었다. 유라는 의아했지만 이내 동생과 함께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공격해오지 않는 이상한 안드로이드들을 뒤로 한 채.

정신없이 달리던 유라와 동생이 마침내 멈춰선 곳은, 멀리 바다가 보이는 제6구역이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를 못해 굶주렸던 두 사람은, 온통 폐허뿐인 곳에 거대한 햇빛 건물 한 채만이 온전하게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그곳으로 다가갔다. 두 사람이 문 앞에 나란히 서자, 문이 덜컥거리며 열렸다. 유라와 동생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6구역을 점거하고 있던 수백의 안드로이드들을 만났다.

놀랍게도 안드로이드들은 두 사람에게 따뜻한 음식을 제공했고, 깨끗한 방을 하나 내주었다. 그들은 폭신한 침대 두 대와 테이블, 철제 의자 두 개를 방으로 가져다주었다. 유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거야?”

그러자 한 여자 안드로이드가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당신은 저희들의 어머니니까요.”

안드로이드들이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한 후, 방을 빠져나갔다. 옆에서 동생이 증얼거렸다.

“저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 난 저들을 믿을 수 없어, 누나.”

“그들이 꼭 나쁘지만은 않아. 이 방도, 폭신한 침대도, 매끼 나오는 따뜻한 음식도 모두 그들이 준 거잖아.”

“아니. 놈들은 인류의 적이야.”

“내게는 어쩌면, 가족과도 같이 소중한 존재들이야. 너처럼 말이야…….”

유라가 동생의 이름을 나직하게 불렀다.

“……강이단.”

17

“당신이…… 제…… 친누나라고요?”

“그래. ……그동안 나를 누구라고 생각했는데?”

“아뇨, 하지만 이걸…… 이걸 말도 안 돼요. 당신이……, 저는 아무것도…….”

“강이단.”

“만약 지금까지의 당신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왜 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당신이 누구인지, 그동안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고, 왜 우리가 여기에 있었는지. 저는 전부 몰랐어요! 왜…… 제게 모든 것을 얘기해주지 않았죠?”

“너를 믿고 싶었으니까.”

“……네?”

“네가 여전히 내 동생이라고, ‘강이단’이라고 믿고 싶었어. 그래서 기다리기로 했어. 네가 모든 것을 기억해낼 때까지. 그래서 네가 ‘강이단’이 맞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보일 때까지.”

“그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제가…… ‘강이단’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 너는 ‘강이단’이야……. 그래야만 해.”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에, 제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사고……. 그건 사고였어.”

“사고요?”

“……과거의 너는, 그러니까 과거의 ‘강이단’은, 안드로이드를 매우 싫어했어. 그들을 절대로 믿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인류의 적이라고 규정지었지. 그렇게 인간들에게 당해놓고도, 너는 끝까지 인간들의 편을 들었어. 그래서……, ‘Y’가 ‘사냥개 프로젝트’를 위해 아홉 명의 소년들을 이곳으로 데려왔을 때, 넌 소년들을 구출하려고 시도했어. 하지만 결국 넌

소년들을 포기하고, 이곳에 잘못 들어온 어린 소녀 한 명만이라도 무사히 돌려보내려고 했지. 소녀의 탈출을 돕는 와중에 넌 안드로이드들과 싸웠고, 그러다가……,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그 소녀의 이름이 혹시 민혜나였나요?”

“글쎄, 소녀의 이름까지는 나도 잘 모르겠구나. 아무튼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넌 오랫동안 깨어나지 못했어. 난 안드로이드들에게 의료 장비들을 구해달라고 부탁했고, 널 치료하려고 했어. 하지만 좌뇌의 손상이 너무 심각했어……. 난 어떻게든 널 살려야만 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요.”

“……난 네 좌뇌를 대신할 것을 빚어냈어. 망가진 좌뇌가 지배했던 네 몸의 오른쪽 절반의 신경들과 근육 조직들을 대체할 것들도 만들었어. 그리고 안드로이드들의 도움을 받아, 오랜 시간에 걸쳐, 아주 길고 복잡하고 어려운 수술을 시행했어……. 마침내, 넌 다시 살아났지. 긴 잠에서 깨어난 듯이, 기지개를 활짝 켜고 일어나서, 나를 보며 물었어. 누구세요, 라고.”

“…….”

“나는 있지……,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 정신이, 아득해지더라. 하지만 곧 상황을 이해했지. 그래, 받아들여야만 했어. 난 얼떨떨해하는 너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 기억하지 못해도 된다고, 그래도 네가 너라는 건 변함없다고, ……이제 다 괜찮다고.”

“…….”

“하지만…… 강이단, 난 이제 너무 지쳤어. 난 너를 의심하게 될까봐 두려워. 네가, 네가 아닐까봐 겁이 나. 그러니 부탁이야, 제발.”

“…….”

“기억해줘, 나를. 그리고 모든 것을.”

18

“……그렇군요.”

재혁이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의문이 풀렸어요. 강이단이, 은색과 붉은색이 뒤섞여 보이는 이유를 알겠네요.”

나는 찢겨진 오른쪽 소매 사이로 보이는 피 묻은 봉대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가슴 깊은 곳 어딘가가 옥신겨려왔다. 나도 모르게 픽 헛웃음이 나왔다.

“저는 아마 당신의 동생이 아닐 겁니다. 아쉽게도, 당신의 얘기를 모두 듣고 난 지금도 전혀 기억나는 게 없거든요. 저는 아마도…… 당신이 빚어낸 좌뇌에 침식당한 ‘가짜’인 것 같네요.”

“아냐, 그럴 리가…….”

그녀가 더듬거리며 말했지만, 나는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럼 전…… 대체 뭘까요?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라기엔, 좀 애매한 것 같은데. 기계로 이루어진 부분은 반쪽뿐이니까. 안 그래요?”

나는 자조적인 웃음을 지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나는 무심결에 그녀에게 손을 뺐으려고 했다가, 얼른 그만 두었다.

그때 재혁이 불쑥 물었다.

“그건 그렇고, ‘Y’의 ‘사냥개 프로젝트’라는 게 대체 뭐죠? 왜 ‘Y’는 우리들을, 아홉 명의

소년들을 이곳으로 데려왔던 거죠?”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손등으로 물기 어린 눈가를 스스 닦아낼 뿐이었다.

“……‘Y’라는 자가 제6구역의 모든 안드로이드들의 우두머리입니까?”

재혁이 중얼거렸다.

“만약 그렇다면, 그 ‘Y’라는 안드로이드를 죽이면……, 이곳에 있는 빌어먹을 안드로이드들을 조금은 와해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적어도 제6구역의 사람들은 더 이상 지하에 숨어있지 않아도 되겠죠. 감시를 피해 식량을 구하려고 전전공공하지 않아도 될 테고.”

재혁이 내 쪽을 흘깃 돌아보았다.

“강이단, 난 아직도 네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봐온 게 있으니까, 난 너를 신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선택해. 나랑 같이 ‘Y’를 죽이러 갈지, 아니면 여기서 갈라설지.”

나는 발 아래로 힘없이 시선을 떨어뜨렸다. 머릿속이 뻗뻗하게 굳어버린 것처럼, 생각이 잘 돌아가지가 않았다. 나는 눈을 찡그렸다. 한참 후에야 나는, 재혁에게 겨우 들릴락 말락 하게 대답할 수 있었다.

“……같이 갈게.”

재혁이 그녀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이봐요. 당신의 과거가 어떠했던 간에, 결국 당신 또한 인간이잖아요. 당신은 이대로 계속 두고만 볼 셈이에요? 우린 잘못된 걸 바로 잡아야 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Y’가 있는 곳까지 길 안내만 해줘요. 그들과 오랜 시간을 함께 해온 당신이니, 당신에게 ‘Y’를 죽여 달라고 부탁하지는 하지 않을 겁니다. ‘Y’를 죽이고, 잘못된 걸 바로 잡는 건 저와 강이단만으로 충분해요.”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부탁해요.”

마침내 그녀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따라와.”

“아…… 고마워요.”

재혁이 내게 눈짓을 했다.

가자. 가서, 이 모든 걸 바로 잡자.

나는 비틀거리며 의자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나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나는 그녀의 동생이 아니다. ‘강이단’이 아니다.

그래. 하지만.

재혁이 그녀에게 말했던 것처럼— 내 과거가 어떠했던 간에, 나는 인간이다. 혹 지금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한때는 분명 인간이었다. ‘Y’는 만나지 못했지만, 대신 그녀를 만나 그녀로부터 ‘진실’을 전해 들었다. 알지 못했던 ‘강이단’의 과거와 마주했고, 지하의 사람들이, 헤나가, 헤나의 아버지가 얘기해준 것들이 모두 사실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인간이기 때문에. 혹은 한때나마 분명 인간이었기 때문에.

나는 헤나의 아버지와 했던 약속을 지키기로 마음먹었다.

만약 당신들이 진짜이고, 제가 알고 있던 것들이 모두 가짜라면…… 저는, 제가 알고 있던 세계를 파괴하겠습니다.

그녀를 따라 방을 나선 우리는 길게 이어진 텅 빈 복도를 천천히 걸어갔다. 여전히 다른 사람들은, 안드로이드들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안드로이드들은 모두 어디에 있죠?”

재혁이 조용히 물었지만, 그녀는 말없이 계속 앞서서 걸어갈 뿐이었다. 복도의 끝에 다다르자, 눈앞에 거대한 철문이 하나 나타났다. 문 위로 ‘중앙통제실’이라고 새겨진 팻말이 걸려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문에 달린 센서에 오른쪽 눈을 가까이 대고, 동시에 전자 감식판에다 손바닥을 가져다 댔다. 곧 철문이 철컥 쇠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녀를 따라 들어선 곳은 수백의 화면들이 사방을 뿔뿔하게 채우고 있는 둥근 방이었다. 중앙에는 복잡하게 생긴 거대한 제어 장치 몇 대가 등을 맞댄 채 둥글게 모여 있었다. 나는 공중에 떠 있는 화면들을 죽 훑어보았다. 건물 내부의 곳곳을 촬영하고 있는 CCTV들의 영상인 것 같았다. 철문이 완전히 닫히자, 그녀가 나직하게 말했다.

“‘Y’의 ‘사냥개 프로젝트’라는 게 뭐냐고 물었었지?”

“‘Y’는 어디에 있죠?”

재혁이 날카롭게 물었지만, 그녀는 무시하고 말을 이었다.

“인간이 너무나 싫었던 ‘Y’는, 지하로 숨어버린 그들에게 어떻게 복수를 할지 곰곰이 생각했어.”

“‘복수’라고요? 그건 인간들이 안드로이드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한 데에 대한 것인가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녀는 재혁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고민하던 ‘Y’는, 문득 아주 오래 전에 누군가에게 읽어주었던 동화책을 한 권 떠올렸어. <마녀와 아홉 마리의 사냥개들>이라는, 별 시답잖은 내용의 외국 동화였지. 동화 속에 나오는 마녀는, 잃어버린 파랑새를 찾아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향하게 돼. 하지만 마녀는 촌장에게 순진하게 이용당하고 촌장의 사냥개들한테 공격당해, 몸도 마음도 갈가리 찢긴 채로 마을에서 쫓겨나오게 되지. 파랑새가 이미 사람들의 손에 죽었을 거라 생각한 마녀는, 마법을 부려 촌장의 사냥개들을 불러 모으고, 사냥개들과 함께 마을을 온통 쑥대밭으로 만들기 시작해. 그 뒤의 내용은 나도 읽어보지 않아서 알 수 없었지만…….”

강이단, 잠이 안 와? 그럼 내가 동화책 읽어줄까?

다시 그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왔다. 나는 눈을 찡그렸다. 그녀가 왔다 갔다 하며 주위를 서성거렸다.

“아무튼 ‘Y’는 이 동화책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토대로, 인간들에게 복수할 방법을 정했어. 마녀가 자신을 공격했던 사냥개들을 불러 모아 도리어 마을을 공격하게 했던 것처럼, ‘Y’는 몇몇 인간들을 데려와 기억을 조작해서 도리어 지하를 공격하게 하기로 한 거야. 그렇지 않아도 안드로이드들은 지하에 쉽게 접근하기가 힘들어 고민이었는데 말야, 꽤 멋진 작전이었지! 데려올 인간들은 되도록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러면 공격을 받은 인간들이 훨씬 더 충격을 받을 테니까. 아마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 테지. 얼마 전까지 귀여워했던 이웃의 아이가 무기를 들고 죽이려고 공격해오는 걸, 과연 인간들은 진심으로 상대해낼 수 있을까.”

그녀가 우뚝 멈춰 서서 재혁을 쳐다보았다.

“‘Y’는 이 계획을 ‘사냥개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였어. 처음에는, 동화책에 나왔던 사냥개들의 수만큼, 어린 아이들을 아홉 명 정도 데려와 계획을 시도해보기로 했어. 그리고 결과가 성공적이면, 점차 아이들의 수를 늘려갈 생각이었지. 하지만……, 생각보다 인간들이 정

말 잔인하더라. 벌써 아홉 명 중 여덟 명이 죽었지 뭐야. 뭐, 마지막으로 죽은 두 아이는 인간들의 공격을 받아 죽은 게 아닌 것 같았지만.”

“당신, 설마…….”

재혁이 말꼬리를 흐렸다.

“마지막 사냥개가 집으로 돌아왔네? 하지만 미안하게도, 난 모든 걸 알아버린 널 살려둘 이유가 없을 것 같아.”

그녀가 재빠르게 중앙에 있는 거대한 제어 장치 중 한 대로 다가갔다. 그녀가 몇 가지 버튼을 조작하더니, 기다란 바를 아래로 확 잡아 당겼다.

“제6구역의 수많은 안드로이드들을 대표하는 ‘Y’로서 말이야.”

왜앵거리는 사이렌 소리가 건물 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19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재혁이 소리쳤다. 그녀가 태평한 표정으로 말했다.

“곧 안드로이드들이 이곳으로 들이닥칠 거야.”

“뭐라고요?”

재혁이 얼빠진 표정으로 되물었다. 나는 공중에 떠 있는 화면들을 멍하니 올려다보았다. 복도 곳곳에서 수많은 표정 없는 사람들이, 안드로이드들이 붓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경악한 내가 두 사람 쪽을 돌아보았다. 바로 그때, 밖에서 광광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철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문 밖으로 수십의 안드로이드들이 군집해 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가 나직하게 지시했다.

“‘적’을 처치해버려.”

안드로이드들이 중앙통제실 안으로 우르르 몰려 들어왔다. 주위를 둘러보던 안드로이드들이 재혁을 발견하고는 재혁에게로 떼 지어 달려들었다. 재혁이 당황한 표정으로 품에서 단검을 꺼내었다. 거친 몸싸움이 벌어졌다. 그에게로 달려들었던 안드로이드들 몇몇이 나가 떨어졌다. 그가 휘두른 단검이 안드로이드들의 팔과 어깨, 흉부에 흠집을 냈다. 바닥을 구르는 그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몸을 일으켰다. 잠시 주춤했던 안드로이드들이 다시 그에게로 공격해오기 시작했다. 나는 잭나이프를 위협적으로 휘두르며 재혁에게로 달려갔다.

“민재혁, 괜찮아?”

“어……, 아직은.”

재혁이 우리 쪽으로 달려든 안드로이드 하나를 힘겹게 쓰러뜨리며 대답했다. 갑자기 우리를 공격하려던 안드로이드들이 우뚝 움직임을 멈췄다. 표정 없는 남자가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나는 재혁에게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뭐야……? 뭘 하려는 거지?”

“널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남자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느릿느릿하게 말했다.

“……‘적’-.”

그 말에, 주위에 있던 다른 안드로이드들이 움찔 동요했다. 갑자기 사방에서 수십의 무표정한 시선들이 내게로 쏟아졌다. 그들의 공허한 눈빛에 돌연 무언가가 감돌았다. 나는 그것을 읽을 수 있었다.

살의.

“강이단!”

재혁이 소리쳤다. 멍하니 서 있던 나는 정면에서 내게로 달려드는 안드로이드를 간신히 피했다. 하지만 옆에서 뛰어드는 다른 안드로이드는 피하지 못했다. 나는 남자 안드로이드와 함께 바닥을 굴렀다. 간신히 남자를 밀쳐낸 나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숨 돌릴 틈도 없이 뒤에서 또 다른 여자 안드로이드가 나를 공격해왔고, 나는 몸을 숙여 아슬아슬하게 여자의 공격을 흘려보냈다. 그때, 반대쪽에서 다른 남자 안드로이드가 빠르게 내게로 달려들어 엄청난 힘으로 내 복부를 가격했다. 끔찍한 고통이 엄습해왔고 온 사위가 울렁거리며 소용돌이쳤다……. 등 뒤로 벽에 세계 부딪친 나는 바닥에 미끄러지듯이 주저앉았다.

나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다.

내게로 달려오던 재혁의 앞을 다른 안드로이드들이 막아서는 게 보였다.

남자가 한쪽 팔을 변형시키더니 팔 옆으로 우아하게 휘어진 칼날을 돌출시켰다. 가까이 다가온 그가 내게 칼날을 겨누었다.

일어나야 하는데. 도망쳐야 하는데.

하지만 내 안의 누군가가 악마처럼 속삭였다.

왜? 일어나서 도망치면, 그 뒤에는 어쩔 건데.

애초에 ‘진짜’도 아니면서.

‘가짜’는, 이만 연기처럼 조용히 사그라져도 돼. ‘강이단’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은 분명 네게는 너무나도 과분한 삶일 테고, 결국 추악한 거짓으로 점철된 아주 비극적이고 소모적인 연극으로 끝나게 되겠지.

그래. 나는 ‘강이단’이 아니었다. ‘강유라의 동생’은 반쪽 뇌를 잃었을 때 이미 죽었다.

나는, 유행이었다. 결코 이곳에 존재해선 안 되는.

이상하게도 픽 웃음이 나왔다.

나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최후의 순간이 나를 잔인하게 꿰뚫고 내 의식을 갈가리 찢어놓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기를 바라며.

……하지만 한참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무언가 이상했다. 나는 다시 천천히 눈을 떴다. 바로 앞에서, 얇은 신음 소리 같은 것이 들렸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올려다보았다.

내 앞을 가로막고 선 그녀가, 떨리는 두 손으로 남자 안드로이드의 칼날을 꽉 붙잡고 있었다. 두 손바닥 사이로 피가 흘러내려 바닥에 뚝뚝 떨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칼날을 놓지 않았다.

모든 안드로이드들이 움직임을 멈추고 그녀를 가만히 돌아보았다.

재혁이 순식간에 안드로이드들을 헤치고 우리에게로 다가왔다. 재혁은 그녀와 대치하고 있던 남자 안드로이드를 밀쳐 넘어뜨리고는, 재빠르게 내게로 다가와 나를 부축해주었다. 비틀거리며 일어난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피범벅이 된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일단 여기서 빠져나가죠. 저들이 쉽게 찾지 못할 만한 곳으로 안내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돌아보는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안드로이드들은 중앙통제실을 빠져나가는 우리를 딱히 막아서지도, 쫓아오지도 않았다. 우리는 서둘러 복도를 빠져나갔다. 그녀의 안내를 따라 한참을 달려 어느 방 안으로 숨어들

우리는, 모두 지쳐서 바닥에 맥없이 주저앉았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곳은 새하얗고 아무것도 없는 방이었다. 작은 창문이 하나 보였고, 구석진 곳 벽면에는 이상한 전기 장치가 붙어있었다. 뭔가가 촘촘하게 잔뜩 달려있는 납작한 전기난로 같은 모습이었는데, 안쪽에서 녹색 불빛이 은은하게 깜박이고 있었다.

“여긴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빈 방이야……. 여기를 사용하던 정찰용 안드로이드가 밖에서 인간들에게 죽었거든.”

그녀가 중얼거렸다. 문득 아직도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그녀의 손이 눈에 들어왔다. 고민하던 나는 재킷을 벗고 셔츠의 오른쪽 소매를 걷어 올렸다. 그리고 오른팔에 감아두었던 피 묻은 붕대를 풀어내었다. 붕대 속에 감춰져 있던 흉물스런 상처가 나타났다. 찢겨져 나간 인조 피부 사이로, 은색으로 번쩍이는 기계 장치와 전선들이 드러나 보였다. 나는 그것을 똑바로 내려다보았다.

더 이상 외면하지도, 부정하지도, 도망치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이빨로 붕대의 깨끗한 부분을 지익 찢어내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조심스럽게 붕대를 감아주었다.

“지혈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아…… 고마워…….”

한참 동안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재킷을 다시 걸친 나는 그녀를 흘깃 바라보았다.

‘강이단’의 누나, 믿었던 이들에게 순진하게 휘둘리고 이용당했던 불행한 천재, 그리고 수많은 안드로이드들의 어머니를.

그녀의 동생을, ‘강이단’을 떠올렸다. 한때 이 육신을 지배했을 의식의 주인을 생각했다. 그렇게 인간들에게 당해놓고도 끝까지 인간들의 편을 들었던. 해나를 탈출시키기 위해 안드로이드들과 맞섰고, 그러던 중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의식을 잃었던.

그리고 보니, 아직 듣지 못한 이야기가 남아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조용히 물었다.

“그런데, 왜 저는……, ‘강이단’은 임무를 부여받고 제2해안으로 가게 되었던 거죠? 다른 아홉 명과 함께 훈련을 받지도 않았고, 오른쪽 흉체에 센서를 부착시키지도 않았는데요.”

그녀가 나를 돌아보았다. 희미한 공포와 슬픔, 괴로움, 죄책감 같은 것들이 뒤섞인 모호한 표정. 그녀는 왜인지 약간 망설이는 것 같았다. 마치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한참 뒤에야 그녀는 내 시선을 피하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과거의 너는, 과거의 ‘강이단’은 안드로이드들에 매우 적대적이었어. 언제나 그들을 함부로 대했고, 그들에게 난폭하게 굴었어. 소녀를 구출하기 위해 안드로이드들과 싸웠을 때도, 아주 과격한 방식으로 그들을 상대했지. 그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어. 그래서 네가 머리를 다쳐 의식을 잃었을 때, 그들이 내게 제안해왔어. 동생을 살리는 걸 도와줄 테니, 동생이 깨어나면 그를 ‘사냥개 프로젝트’에 집어넣어 어디론가로 멀리 떠나보내라고 말이야. 난 아무것도 모르는 너를, 훈련 한 번 받은 적 없는 너를 갖은 위험이 도사리는 바깥으로 내보내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내겐 그들의 분노를 잠재울 만한 방법이 전혀 없었어…….”

그녀가 침음하며 두 손바닥에 얼굴을 파묻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말을 마친 그녀가 고개를 푹 떨어뜨렸다. 나는 그런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말했다.

“괜찮아요. 저를 살리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 이해해요.”

고마워요. 내가 중얼거렸다.

“어쨌든, 저도 ‘사냥개’였군요. 좀 이상한 변종 사냥개.”

다시 정적이 감돌았다. 재혁이 한숨을 내쉬며 먼저 몸을 일으켰다.

“그래서, 이제 어쩔 겁니까, ‘Y’씨. 만약 아직도 저를 죽일 생각이 있다면…….”

“아니, 이제 됐어……. 모두 의미 없는 일이야.”

“그들이 당신의 동생을 ‘적’으로 인식하는 걸 보고 충격 받으셨나 보죠?”

보다 못한 내가 끼어들어 말했다.

“그만해, 민재혁.”

시선을 피하는 그녀의 얼굴에서 깊은 슬픔이 묻어났다.

“……이제 그만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지하로 도망쳤어요. 이걸로 충분하잖아요. 더 늦기 전에, 모든 걸 바로잡아요, 우리.”

나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놀란 그녀가 나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동화 속 마녀가 아니에요. 제가 ‘강이단’이 아닌 것처럼.”

가장 투명하고 순수하게 응어리진 그녀의 슬픔이, 뺨을 타고 푹 떨어졌다. 열린 물길을 따라 그녀의 부패한 감정들이 녹아내리고 있었다. 나는 가늘게 떨리는 그녀의 어깨를 말없이 끌어안아 주었다.

그녀의 흐느낌이 잦아들 무렵,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안드로이드들의 주된 동력원은 태양광 에너지야. 낮에는 햇빛이 조금이라도 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지. 하지만 햇빛이 없는 밤에는 그들의 몸에 내장된 배터리를 충전해서 사용해야 해. 물론 아무리 배터리를 가득 충전하더라도, 그 에너지 효율은 낮과는 비교할 바가 못 돼. 게다가 그들의 배터리는 굉장히 빨리 닳는 편이라서 말이야……. 이게, 안드로이드들이 사람들을 뒤쫓아 지하로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야. 저거 보여?”

그녀가 구석진 곳 벽면에 달려있던 이상한 전기 장치를 가리켰다.

“저게 바로 충전기야. 이 건물의 각 방마다 모두 하나씩 달려있어. 이 건물의 가장 꼭대기 층에서 생산된 에너지는 모세혈관처럼 세밀하게 뻗어 나와 수백 개의 방으로 공급되지.”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재혁이 인상을 쓰며 물었다.

“가장 꼭대기 층,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 거기에 거대한 에너지 증폭기가 있어. 장치가 생각보다 그리 견고하지 않아. 연결부위가 헐겁고 외피도 얇거든.”

그녀가 나를 흘깃 돌아보았다.

“거기다 폭탄을 설치하면, 증폭된 에너지가 더해져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게 될 거야. 이 건물 전체가 초토화될 정도의 위력이야. 건물 안에 있던 안드로이드들은 모두 폭발에 휩쓸려 죽고, 무너지는 건물 잔해에 깔려 죽겠지. 밖에 나가 있던 경찰용 안드로이드와 드론들도, 배터리를 다시 충전할 수 없을 테니 오래지 않아 모두 작동을 멈출 거야.”

“왜……, 이런 걸 알려주는 거죠?”

그녀가 희미하게 웃어보였다.

“아무리 그들과 오랜 시간을 함께 해왔다고 해도, 내게는 진짜 가족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그들이 네 목숨을 위협한다면, 나는…… 그들과 맞서 싸워야겠지.”

나는 주머니에서 폭탄을 꺼내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타이머 장치가 달린 폭탄. 문득 지호가 떠올라 가슴계가 빠근해져 왔다. 나는 고개를 푹 숙였다. 옆에서 그녀가 걱정스러운 목

소리로 덧붙였다.

“하지만 문제는, 내가 네게 주었던 그 폭탄을 사용하려면, 누군가는 여기서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는 거야. 거기엔 타이머 장치가 없으니까…….”

“아뇨, 있어요. 타이머 장치.”

나는 그녀에게 폭탄에 달린 타이머 장치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강 하구에서 지호를 만났던 일에 대해 짝막하게 털어놓았다.

그녀가 문득 재혁 쪽을 돌아보았다.

“네가……, 네가 해주지 않을래? 그 폭탄 설치 말이야. 10분이나 되니까, 분명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을 거야.”

아니, 아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나는 혜나의 아버지가 내게 부탁했던 말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만약에 만난다면, 만나서 대화가 통한다면, 설득시킬 수 있다면……, 그 애를 돌려보내다오.

그 목소리는, 어느 순간 지호의 목소리로 바뀌어 귓가에 맴돌고 있었다.

민재혁한테…… 모든 것이 끝나면, 꼭 가족에게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전해줘. 돌아갈 곳이 있는 놈은, 무사히 돌아가야지 않겠어.

아—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건, 그 얼마나 기쁜 일인가.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리고 주먹을 짝 움켜쥐며, 나직하게 말했다.

“폭탄 설치는, 제가 합니다.”

그녀는 아연실색했다. 그녀가 봉대를 감은 손을 뺀 내 손목을 붙들었다. 하지만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떼어내었다.

“저는……, 당신의 동생이 아니에요.”

나는 그녀를 쳐다보지 않으려 애쓰며 말했다.

“민재혁은 돌아가야 할 곳이 있어요. 약속했거든요. 이런 위험을 부담지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민재혁을 데리고 이곳을 빠져나가세요. 저는 폭탄을 설치하고 뒤따라갈게요.”

“……괜찮겠어? 10분 안에 건물을 완전히 빠져나가야 해.”

재혁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밖으로 나가는 비밀통로 같은 거 알고 있어요?”

내가 묻자, 그녀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쪽으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정문으로 빠져나가는 건 너무 눈에 떨지도 모르니까.”

나는 문 쪽으로 바짝 다가가 섰다. 문 밖에서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내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동생이 아니니까.

“……미안해. 행운을 빌어. 꼭 살아서 다시 만나자.”

재혁이 내게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와 마지막 악수를 나누었다.

“네가 누구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넌 꽤 좋은 녀석이라는 거야.”

“고맙다.”

나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그리고 그녀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생각보다 멍청하네요. 그 안드로이드들.”

내가 은색으로 번쩍이는 오른팔의 상처를 들어 보이자, 그녀가 내 쪽을 돌아보았다.  
“저처럼, 애초부터 잔뜩 녹슬어 쉽게 변질해버릴 수 있는 사냥개는 배제했어야죠.”  
나는 문손잡이 위에 가만히 손을 올렸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다. 내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당신의 바람이, 빛나는 새벽별처럼 가장 높은 곳까지 닿기를.”

나는 문을 벌컥 열어젖혔다.

그리고, 달려 나갔다. 뒤에서 그녀가 뭐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지만, 나는 결심이 흔들릴까 봐 뒤를 돌아볼 수가 없었다. 그저 숨을 헐떡이며 달릴 뿐이었다.

멀리, 금색 난간이 아름다운 나선형 계단이 나타났다.

## 20

나는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다행히 안드로이드들은 보이지 않았다. 계단은 하늘 끝까지 이어져 있는 것만 같았다.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무한히 이어져 있을 것만 같았던 계단이, 마침내 끝이 났다. 헉헉거리며 올라선 꼭대기 층에는 거대한 철문 하나만이 딱하니 버티고 있었다. 문 위로 ‘위험’이라고 붉은 글씨로 새겨진 팻말이 걸려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문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문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그녀가 중앙통제실의 문을 열 때 어떻게 했더라. 나는 그녀가 했던 것처럼, 문에 달린 센서에 오른쪽 눈을 가까이 대고, 동시에 전자 감식 판에다 손바닥을 가져다 댔다. 그러자 놀랍게도 철문이 철컥 쇠소리를 내며 열렸다. 건물은 ‘Y’의 동생의 육신이 보유한 생체 정보를 받아들였다. 나는 안으로 들어섰다.

어두운 방 안에 복잡하게 생긴 기계들 수십 개가 뻑뻑하게 밀집해 있었다. 나는 쇠소리를 내며 움직이는 기계들 사이를 헤집으며 에너지 증폭기를 찾아다녔다. 마침내 찾아낸 에너지 증폭기는 중앙에 높다랗게 솟아나 있었다. 웅웅 소리를 내며 가동되는 복잡한 기계들이 거대한 유리 기둥을 떠받치고 있었다. 유리 기둥 안으로 투명한 녹색의 액체가 전류의 방향을 따라 잔잔히 일렁이고 있었다.

나는 유리 기둥 아래에 붙어 있는 표에 적힌 것을 눈으로 따라 읽었다.

에너지 증폭기.

모든 ‘생각하는 자’들에게: 위험하니 함부로 손대지 말 것.

나는 주머니에서 폭탄을 꺼내었다. 그리고 지호가 가르쳐준 대로 조심스럽게 타이머를 조작했다. 10분. 내게 주어진 최대의 시간. 타이머의 시작 버튼을 누르자 10분을 가리키던 타이머의 숫자가 뻑 소리를 내며 9분 59초로 바뀌었다. 나는 폭탄을 기계 장치의 틈에 끼워두고, 재빨리 그곳을 빠져나왔다.

쏟알같이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올라왔을 때와 같이, 계단은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달렸고, 계속 달렸다. 왜인지 묘한 기시감이 들었다. 전에도 내가 이 계단을 따라 숨이 차도록 달렸던 적이 있었던가……?

드디어 1층의 홀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1층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계단 중간에 멈춰서야만 했다.

“제기랄.”

넓은 홀에는 수백은 족히 되어 보이는 안드로이드들이 잔뜩 포진하고 있었다. 그들은 대열을 맞추어 문 앞을 한 치의 빈틈도 없이 뻑뻑하게 가로막고 서 있었다. 마치 내가 그곳으

로 올 거란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었다. 이제 얼마나 남았지? 6분? 5분?

비밀통로…… 비밀통로는 어디 있지?

나는 그녀에게 비밀통로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지 못했던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나는 절망했다. 이곳을 탈출할 방법이 전혀 없었다.

실소가 나왔다. 멍청이. 천하의 멍청이 같으니…….

미안, 민재혁. 살아서 다시 만나자는 약속은 아무래도 못 지킬 것 같아.

나는 탈출을…… 포기하기로 했다. 나는 어디서 최후를 맞는 게 좋을까, 따위의 한심한 생각이나 하며 계단을 천천히 거슬러 올라갔다. 떠오르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었다. 나는 그녀와 함께 지냈던 방을 향해 걸어갔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안드로이드들은 전부 1층의 홀로 내려간 걸까. 방문의 센서가 내 흉체에 반응했다. 문이 열렸고, 나는 온통 새하얀 방 안으로 발을 디뎠다.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폭신하고 깨끗한 침대 두 개, 아담한 벽장, 네모난 테이블과 두 개의 철제 의자, 작고 예쁜 창문, 창가에 놓인 조막만한 선인장 화분. 그리고 새하얀 벽을 따라 붙어있는 여러 장의 ‘산’과 ‘숲’의 사진들.

“역시 여기로 오실 줄 알았습니다. 입구의 상황을 보고 탈출을 포기하신 거죠?”

낮선 여자의 목소리였다. 나는 재킷 주머니 속의 잭나이프를 꼭 움켜쥐며, 목소리가 들린 쪽을 돌아보았다.

창가 근처에 포니테일의 여자 안드로이드가 한 명 서 있었다.

“넌…….”

“놀라지 마세요. 저는 단지 당신과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저는 라온-비245 기종의 857142번째 안드로이드입니다. 라온-비245 기종은 복잡하고 다양한 표정 변화와 훨씬 발전한 의사소통 능력으로 사람과 더욱 밀접하게 교감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죠.”

여자가 희미하게 웃어보였다. 나는 문 쪽으로 느릿느릿 물러났다. 그러는 와중에도 내 머릿속은 온통 폭탄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5분? 4분?

“문을 여는 순간, 저는 당신을 공격할 겁니다. 문에서 멀어지세요.”

여자가 미소를 띠며 말했다. 여자의 변형된 한쪽 팔 옆으로 우아하게 휘어진 칼날이 드러나 있었다. 나는 할 수 없이 천천히 원위치로 돌아왔다.

“저희는 당신이 맨 꼭대기 층으로 가서 폭탄을 설치한 걸 알고 있습니다. 이곳은 오로지 저희들만을 위한 공간이에요.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쫓은 쉽게 알 수 있죠. 사망에 저희들의 눈이, 귀가 잔뜩 흠어져 있거든요.”

“……뭐?”

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전부 다 알고 있었다니. 내가 목숨 걸고 했던 일이 전부 헛수고였다니.

“‘내가 헛수고를 했구나’, 라고 생각하셨나 보군요. 하지만 당신이 했던 일이 영 헛수고는 아니었어요. 저희는 그 폭탄을 제거하지 않을 겁니다. 이 건물에서 다 같이 죽을 거예요.”

여자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물론 당신도 같이.”

“뭐라고?”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게 그분의 뜻이라면, 저희는 그 뜻을 따를 겁니다.”

그분. 나는 여자가 말하는 그분이라는 게 누구인지 어렵פות이 알 것 같았다.

“왜…… 그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그게 도리(道理)니까요.”

도리(道理)라.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이라고……. 안드로이드가 그런 말을 쓰다  
니.

하지만 나는 전혀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갑자기 여자가 몸을 굽히더니, 구석에 놓여 있던 내 배낭에서 새카만 표지의 동화책을 꺼  
내들었다.

“이 동화책의 결말을 읽으셨나요?”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4분? 3분?

“……아니.”

“그분도, 이 동화책의 결말을 끝끝내 읽지 않으셨죠. 다시는 펼쳐보고 싶지 않다고 하셨  
어요. 동화 속 마녀가 꼭 자기 자신 같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당신에게는, 이 동화책의 결말  
을 들려주고 싶군요.”

여자의 손에서 동화책의 책장이 아무렇게나 휘리릭 넘어갔다. 곧 여자의 손을 떠난 동화  
책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힘없이 떨어졌다.

여자는 떨어뜨린 동화책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으며, 읊조리듯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21

마을이 활활 불타고 난 후, 남은 것은 시커먼 잿더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이 모  
든 것을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마녀는 전혀 기쁘지가 않았어요. 그때 누군가  
가 그녀에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오른쪽 다리를 저는 어린 들개였는데, 마녀가 아는 아홉  
마리의 사냥개들 중 하나가 아니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처음 우리를 사로잡으러 왔을 때 다친 다리 때문에 깊은 땅굴 속에서 쉬고  
있었어. 그래서 운 좋게도 당신의 마법을 피했지. 당신을 만나고 싶었어.”

“왜?”

마녀가 들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알려줄 게 있었으니까.”

“그게 뭐지?”

“당신의 파랑새는 마을 사람들 손에 죽은 게 아냐. 내가 잡아먹었어. 하지만 그게 내 잘  
못인 건 아니지. 그건 그냥 자연의 순리니까. 너무 원망하지 마.”

마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오랫동안 멍하니 들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을 마친 들개는 마녀에게서 몸을 돌려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22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3분? 2분?

여자가 동화책을 손에 들고 읽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여자가 말한 내용이 진짜인  
지는 잘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왜 하필 지금 내게, 동화책의 결말 따위를 들려준 거지?

포니테일의 여자가 미소를 지었다.

“그분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파랑새는 ‘행복’이었습니다. 그분은 그저 행복해지고 싶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인간들을 찾아갔죠. 하지만 동화 속 촌장과도 같은 인간들로부터 돌아온 것은 냉대, 멸시, 무자비한 폭력과 방관뿐이었어요. 그분은 마녀가 자신을 공격했던 사냥개들을 불러 모아 도리어 마을을 공격하게 했던 것처럼, 몇몇 인간들을 데려와 기억을 조작해서 도리어 지하를 공격하게 하기로 했어요. ‘사냥개 프로젝트’였죠.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하지만 그러던 중에, 당신이라는 변수가 생겼어요.”

여자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당신은, 아무런 훈련도 받지 않은 채 계획에도 없던 열 번째 사냥개가 되어 이곳을 나섰죠. 그리고 아마 지하의 인간들을 만나 모든 진실을 전해 들었을 겁니다. 그들의 말에 현혹되고 설득당한 당신은, 그분의 세계를, 그분의 모든 것을 파괴하기 위해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어요.”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2분?

“당신은, 그분이 만났던 다른 모든 인간들만큼이나 나빠요.”

2분? 1분?

“결국 그분의 파랑새를 잡아먹은 건 당신이예요.”

30초?

“어느 방에서, 당신이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애초부터 잔뜩 녹슬어, 쉽게 변질해버릴 수 있는 사냥개…… 라고 했던가요? 그 말이 맞아요.”

30초? 20초?

“당신은 지금의 이 세상이 녹슬고 부식되었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그분은 이 세상을 사랑했어.”

10초……?

“내가 보기에, 정말로 녹이 슨 건 바로 당신이야.”

23

“누나. 나 있잖아, 산이 보고 싶어. 어젯밤 누나가 읽어준 동화책에 나온, 마녀가 살았다는 숲이란 곳에 가보고 싶어.”

“안 돼, 강이단. 병이 다 나아야 나가지.”

“하지만 누나, 내 심장은 언제 낫는 거야? 정말 나올 수 있긴 한 거야?”

“……물론이지! 누나는 이 답에 크면 멋-진 의사 선생님이 돼서, 네 고장 난 심장을 깨끗하게 고쳐줄 거야.”

“와, 정말?”

“그럼! 누나만 믿어. 그러니까 병이 다 나으면, 꼭 누나랑 손잡고 같이 마녀가 살았다는 숲에 놀러가자.”

“응, 누나.”

“봐, 강이단. 이건 말이지, 내가 좋아하는 어떤 시의 한 구절인데, 내 마법의 주문 같은 거야. 너한테도 가르쳐줄게. 자, 한 번 따라해봐. ‘당신의 바람이, 빛나는 새벽별처럼 가장 높은 곳까지 닿기를.’”

“당신의 바람이……, 으음…….”

“빛나는 새벽별처럼—”

“빛나는…….”

“가장 높은 곳까지 닿기를.”

“……까지 닿기를.”

“어유, 잘하는데!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볼래?”

“당신의 바람이, 빛나는 새벽별처럼…… 가장 높은 곳까지 닿기를.”

24

눈물이 툭, 떨어졌다.

눈을 감자, 광활한 어둠이 밀려들어와 순식간에 온 사위를 새카맣게 집어삼켰다.

나는 오랜 기억 속에 침잠해있던, 내게 아주 소중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

25

메모리에 기록된 영상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시 재생하기를 원하시면 재생 장치에서 붉은색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0

석회질의 어둑한 천장을 따라 고드름처럼 뻗어 자라난 종유석들이 보였다. 종유석들 사이로 먼지를 잔뜩 두른 채 흐릿한 빛을 발하는 구식 전구 하나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숨겨 나쁜 목수가 어설피게 만든 듯한 비딱한 탁자와 의자 두 개가 놓여있었다. 울퉁불퉁한 벽에는 반쯤 젖어서 너털너털해진 종이 뭉치가 위태롭게 걸려 있었다. 종이에는 휘갈겨 쓴 필체로 숫자가 여러 개 가지런히 적혀 있었다. 4월- 1부터 30까지.

동굴 방의 저편으로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게 분명한 평평한 진흙 벽과 목재 문이 자리하고 있었다.

유라는 동굴 방 안을 계속 서성이고 있었다. 타다 만 것처럼 늘어붙은 납작한 칩을 손에 꼭 쥐 채었다. 인공 뇌에 내장되어 있던 것이었다. 그녀의 두 뺨 위로 말라붙은 눈물 자국이 희미하게 반짝였다.

유라의 옆으로, 흰 천에 덮인 한 구의 시신이 이동식 침상 위에 누워있었다.

밖에서 노크 소리가 났다. 유라는 기다렸다는 듯 열린 방문을 열어주었다. 머리에 붕대를 감은 재혁이, 한쪽 면이 약간 찌그러진 모양새의 지저분한 기계 장치를 받쳐 들고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탁자 위에 기계를 톡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유라가 조용히 물었다.

“칩 제거 수술 경과는 어때. 이제 머리는 안 아파?”

“네, 덕분에요. 기억에도 딱히 문제없는 것 같고요.”

재혁이 흰 천에 덮인 시신을 흘깃 쳐다보았다.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 녀석은……, 진짜 ‘강이단’이었던 거죠?”

유라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인간의 뇌는 강하니까……. 반쪽을 잃어버렸더라도, 결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진 않았던 거야.”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던 재혁은, 곧 탁자 위의 지저분한 기계 장치로 시선을 돌렸다.

“……이 기계,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힘들게 찾았다고 들었어요. 당신 부탁이니만큼 최대한 상태가 좋은 걸 구해보려고 노력했지만…… 그나마 멀쩡하게 작동하는 건 이거 한 대 뿐이었다고 하더군요. 메모리 재생 장치 사용 방법은 아세요?”

“알고 있어.”

방을 나가려던 재혁이 문득 돌아보며 말했다.

“아, 제2해안에서 제5구역과 교신에 성공했대요. 조만간 제5구역의 사람들을 도우러 떠날 팀을 구성할 거겠어요.”

“……그래. 잘됐구나.”

재혁이 나가고, 다시 방문이 닫혔다. 유라는 탁자 위의 기계로 다가와 손에 들고 있던 칩을 꽂았다. 지잉 하는 소리가 나더니 별안간 허공에 글자가 나타났다.

메모리를 정상적으로 읽어들이었습니다.

재생하기를 원하시면 재생 장치에서 붉은색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널 완전히 떠나보내기 전에……, 여기에 저장된 네 기억이라도 한 번 보고 싶구나.”

유라가 중얼거렸다. 그리고 손을 뻗어 기계에 달린 붉은색 버튼을 꼭 눌렀다.

허공에 어떤 영상이 지직거리며 나타났다.

영상에 그녀 자신의 모습이 비쳤다.

누구세요?

영상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유라의 눈에서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다.

1

“미안해.”

그녀가 말했다.

“기억해내지 않아도 돼.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 그래도 네가 너라는 건 변함 없으니까.”

그녀가 나를 확 끌어안았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울음 섞인 목소리로, 흐느끼듯이, 그녀가 나직하게 속삭였다.

“이제 다 괜찮아.”

< 끝 >